

이 명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과
시각적 평가 연구

- 2000년 이후 현대패션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조 말 희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과
시각적 평가 연구

-2000년 이후 현대패션을 중심으로-

이 명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조 말 희

인 준 서

조말희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은 획일화된 사고와 인성의 부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에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감정과 정신을 우위에 두는 레트로로맨틱 경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의 흐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므로, 현대 패션에서 레트로로맨틱의 등장은 현대인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대한 시각적 평가를 실시하여 레트로로맨틱 패션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에 나타난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을 파악하고, 레트로로맨틱 패션 의복디테일의 시각적 평가에 대한 차원을 분류하며,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연령, 전공에 따른 시각적 평가와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패션 디자인 개발에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미학, 문학, 건축 및 예술자료의 문헌과 국·내외의 패션 관련서적, 파리,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패션 관련 사진자료를 참고로 하여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사진자료는 2000년 이후의 현대패션으로 한정하였다. 사진자료를 근거로 10개의 의복디테일을 선정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조사의 피험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446명이었으며, 자료수집 시기는 2007년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에 의하여 통계분석하였는데, 통계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검증,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레트로로맨틱 패션에는 과장된 조형성이 있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현재의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 과거의 화려하며 장식적인 스타일을 표방하는 것으로 과장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과장된 복식은 공간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커지며 어느 한 부분이 강조되는데 이때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은 함축적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의 패션을 창조하게 된다.

둘째,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화려한 장식성을 지닌다 미학적으로 볼 때 장식은 일종의 형식충동을 계기로 하는 예술이며 장식이 갖는 미적 효과는 여러 예술현상 속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도 화려한 장식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인위적이며 비감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더욱 더 강한 미적, 정신적 욕구를 분출하여 새로운 심미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다원적 복고성을 나타낸다 현대는 형식주의적인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개방성,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 특히 패션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중첩되어 사용되고 있다 시간성이 반영된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는 과거를 풍미하였던 스타일 실루엣, 특정 아이템이 현대적 재질, 기술, 디자인과 결합함으로써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닌 이미지의 차용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시각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디테일 평가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력성 장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의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의복디테일의 장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을 모두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자극물에 대하여 섬세하게 반응하여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디테일이 더 장식적이면서 여성성이 높다고 지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의복디테일에 따른 지각은 5개 요인의 모든 평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프릴과 플라운스, 퍼프는 여성성이 강한 디테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플라운스는 가장 매력적인 디테일이었다. 러플은 여성성과 장식성이 강한 디테일로, 단추는 복고성이 높은 디테일로 지각되었다. 또한 리본과 끈장식은 귀염성이 높은 디테일이었다.

셋째,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매력성과 여성성은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리본과 퍼프슬리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매력적이며 여성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전공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의류전공자들이 비전공자들보다 자극물의 매력성과 여성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식성과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매력성과 귀염성 평가는 디테일과 지각자의 전공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의복디테일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플라운스, 끈장식, 퍼프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특히 플라운스는 남자가 월등히 선호하는 디테일이었다. 전공에 따른 차이에서 모피장식, 퍼프, 플라운스 모두 비전공자들이 의류전공자들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비전공자들은 전공자에 비해 퍼프슬리브의 매력성은 낮게 평가하였으나 선호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고찰과 함께 의복디테일의 시각적 평가를 조사하여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레트로로맨틱 패션을 이해함과 동시에 연구결과를 기초로 개인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른 다양한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의의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연구 범위	5
II.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	7
1.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개념 및 발생배경	7
1) 개념	7
2) 발생배경	10
2.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고찰	21
1) 실루엣	21
2) 소재	25
3) 색채	28
4) 디테일	31
5) 장신구	35
3.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	46
1) 과장된 조형성	46
2) 화려한 장식성	49
3) 다원적 복고성	51
III.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시각적 평가	57
1. 의복의 시각적 평가의 문헌 고찰	57
2. 연구방법	60
1) 측정도구	60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62
3. 연구결과 및 논의	64
1) 의복디테일 평가의 요인분석	64

2)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각적 평가	64
3) 자극물의 2차원상의 위치	72
4)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전공에 따른 시각적 평가	73
5) 의복디테일의 선호도 비교	75
IV. 결론 및 제언	7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의복디테일 평가의 요인분석	65
<표 2>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	66
<표 3> 자극물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	68
<표 4>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전공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	73
<표 5> 성별, 전공에 따른 의복디테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75
<표 6> 자극물에 따른 의복선호도의 차이	76

그 립 목 차

<그림 1> New Romantics	38
<그림 2> New Romantics	38
<그림 3> Guy Laroche, 실루엣, 02/03 F/W	38
<그림 4> Giles, 실루엣, 07 S/S	38
<그림 5> Ji Haye, 실루엣, 02 S/S	38
<그림 6> Kate and Laura Mulleavy, 실루엣, 07 S/S	38
<그림 7> Rodarte, 실루엣, 07 S/S	39
<그림 8> Antonio Berardi, 소재, 05/06 F/W	39
<그림 9> Donna Karan, 소재, 02/03 F/W	39
<그림 10> Alexander McQueen, 소재, 06/07 F/W	39
<그림 11> Blugirl, 소재, 06/07 F/W	39
<그림 12> Vivienne Westwood, 소재, 07 S/S	39
<그림 13> Valentino, 색채, 07 S/S	40
<그림 14> Bill Blass, 색채, 03 S/S	40
<그림 15> Bluemarine, 색채, 01 S/S	40
<그림 16> Gucci, 색채, 07 S/S	40
<그림 17> Valentino, 프린트, 02 S/S	40
<그림 18> Valentino, 프린트, 05/06 F/W	40
<그림 19> Valentino, 러플, 05/06 F/W	41
<그림 20> Emmanuel Ungaro, 러플, 06 S/S	41
<그림 21> Emmanuel Ungaro, 플라운스, 06 S/S	41
<그림 22> Valentino, 플라운스, 02 S/S	41
<그림 23> Chanel, 비즈, 07 S/S	41
<그림 24> Christian Dior, 비즈, 07/08 F/W	41
<그림 25> Aquascutum, 자수, 06/07 F/W	42
<그림 26> Oscar de la Renta, 자수, 03 S/S	42
<그림 27> Chanel, 리본, 07 S/S	42
<그림 28> Donna Karan, 리본, 03 S/S	42
<그림 29> Jil Sander, 끈장식, 05 S/S	42
<그림 30> Versace, 끈장식, 03/04 F/W	42
<그림 31> Christian Dior, 모피장식, 07/08 F/W	43

<그림 32> Christian Dior, 모피장식, 07/08 F/W	43
<그림 33> Aquascutum, 단추, 06/07 F/W	43
<그림 34> Dolce & Gabbana, 단추, 06/07 F/W	43
<그림 35> Luisa Beccaria, 퍼프슬리브, 07 S/S	43
<그림 36> Malandrino, 퍼프슬리브, 07 S/S	43
<그림 37> Sonia Rykiel, 장신구, 07 S/S	44
<그림 38> Louis Vuitton, 장신구, 07 S/S	44
<그림 39> Alexander McQueen, 장신구, 07 S/S	44
<그림 40> Valentino, 장신구, 07 S/S	44
<그림 41> Valentino, 장신구, 07 S/S	44
<그림 42> John Galiano, 장신구, 07 S/S	44
<그림 43> Valentino, 장신구, 05/06 F/W	45
<그림 44> Peter Jensen, 장신구, 06/07 F/W	45
<그림 45> Ralph Rucci, 과장된 조형성, 07 S/S	54
<그림 46> Vivienne Westwood, 과장된 조형성, 06/07 F/W	54
<그림 47> Jean Pual Gaultier, 과장된 조형성, 02 S/S	54
<그림 48> Alexander McQueen, 과장된 조형성, 07 S/S	54
<그림 49> Viktor & Rolf, 과장된 조형성, 02 S/S	54
<그림 50> Viktor & Rolf, 화려한 장식성, 02 S/S	54
<그림 51> Christian Lacroix, 화려한 장식성, 06/07 F/W	55
<그림 52> Tokuno ler Vol., 화려한 장식성, 00 S/S	55
<그림 53> Rodarte, 화려한 장식성, 07 S/S	55
<그림 54> Valentino, 화려한 장식성, 05/06 F/W	55
<그림 55> Christian Dior, 다원적 복고성, 00/01 F/W	55
<그림 56> Junya Watanabe, 다원적 복고성, 07 S/S	55
<그림 57> Alexander McQueen, 다원적 복고성, 06/07 F/W	56
<그림 58> Viktor & Rolf, 다원적 복고성, 02 S/S	56
<그림 59> Alexander McQueen, 다원적 복고성, 07 S/S	56
<그림 60> 자극물	63
<그림 61> 여성성 평가에 대한 성별 및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0
<그림 62> 매력성 평가에 대한 성별 및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1
<그림 63> 귀염성 평가에 대한 성별, 연령 및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1
<그림 64> 매력성과 장식성을 기준으로 한 의복디테일의 위치	72
<그림 65> 귀염성 평가에 대한 전공 및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4
<그림 66> 매력성 평가에 대한 전공 및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74

I.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의 흐름 뿐 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 가치관을 표출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 그래서 패션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거울이며 역동적인 순환을 조정하는 활력소가 된다.¹⁾

2000년 이후 현대 사회는 과학과 산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감성보다는 지성위주의 삶이 우선시되며 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95년 보편적 정보통신 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인터넷은 우리 사회를 본격적인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시키면서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²⁾ 그러나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간미가 상실되고 모든 것이 기계화·정보화되는 데에 따라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며 윤리의식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인간성의 부재, 물질 만능주의 등을 경험한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원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거의 단순하였던 삶을 동경하게 되고 기능적인 것 보다 장식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은 복고주의, 역사주의, 절충주의, 레트로 등의 양식으로 나타나는데 최근의 현대 패션에서는 특히 감성과 정열을 중시

1) Pamela Golbin, *Fashion Designers* (New York: Watson-Guptill Publications, 2001), p.225.

2) Don Tapscott, David Ticoll & Alex Lowy, *Digital Capital*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pp.11-12.

하며 과거의 화려하며 장식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이 부각되고 있다.³⁾ 이러한 경향은 프릴, 러플, 비즈, 자수, 셔링 등 여러 가지 장식적 디테일로 표현되며 새로운 시각의 조형적인 특성을 갖는다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은 외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반영된 새로운 문화의 흐름으로 내적인 다원성을 지니며 과거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회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융합되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표현된다.⁴⁾ 문화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또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규정하고 형성해내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특정 관념에 기초한 미적 가치의 평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정신을 표현하고 또한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이다.⁵⁾ 그러므로 인간의 내적 가치관과 문화흐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도 대표적인 표현도구인 패션을 내적·외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레트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나현신⁶⁾, 박은희⁷⁾, 안광숙⁸⁾의 연구 등이 있으며 로맨틱에 관한 연구는 박섯별⁹⁾, 이경아¹⁰⁾, 남형주¹¹⁾의 연구 등이 있다.

3) 채선미, 유영선,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맨티시즘 경향,” 「복식」, 45(1999), pp.62-63.

4) 채선미, 유영선, 위의 글, p.68.

5) 잉그리드 로쉬(Ingrid Losch),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재원 역 (서울: 한길아트, 2002), p.487.

6) 나현신,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19C와 20C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7) 박은희, “계몽주의시대 여성복식의 미적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8) 안광숙, “복식에 표현된 복고경향: 19세기와 20세기 여성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4).

9) 박섯별,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10) 이경아,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11) 남형주, “현대 트렌드에 나타난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

이들은 시대양식으로서의 레트로와 로맨틱을 주제로 하였으며 레트로로맨틱을 다룬 연구는 채선미, 유영선¹²⁾, 이효진¹³⁾, 유진경¹⁴⁾의 연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채선미, 유영선은 레트로로맨틱에서는 과거 바로크 로코코역사에 대한 향수가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고전적, 복고적 경향의 사치를 즐기려는 데서 양감, 장식성, 직물의 강조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효진은 레트로로맨틱의 이미지는 패션디자인에서 전반적인 실루엣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디테일적인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진경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은 낭만적 과거에 대한 향수와 동경속에서 복식이 가지는 기능적 측면보다는 표현적이고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는 로맨틱 스타일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레트로와 로맨틱을 포괄한 레트로로맨틱을 주제로 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장식적인 디테일을 통한 시각적 평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고찰을 통하여 미적 특성을 찾아보고 레트로로맨틱 패션 의복디테일의 시각적 평가에 대한 차원을 분류하며,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연령, 전공에 따른 시각적 평가와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을 분류하고 내재된 의미를 찾아 본다.

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5).

12) 채선미, 유영선, 앞의 글.

13) 이효진, "21세기 로맨티시즘, 걸리쉬 패션," 「복식」, 53(7) (2003).

14) 유진경, "레트로로 표현된 로맨틱이미지 패션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3) (2006).

둘째, 레트로로맨틱 의복디테일의 시각적 평가에 대한 차원을 분류한다
셋째, 레트로로맨틱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및 연령 전공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한다.

넷째, 지각자의 성별, 연령, 전공에 따른 레트로로맨틱 의복디테일 선호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이와 같이 이론적 고찰과 함께 조사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레트로로맨틱 패션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디자인 개발에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레트로로맨틱 패션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개념을 살펴본 다음 형태적 요소들과 내재된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I 장 서론은 연구 목적과 의의,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범위를 다루었다.

II 장은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개념과 발생배경을 알아 보고 실루엣 소재, 색채, 디테일, 장신구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III 장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로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시각적 평가와 선호도를 살펴 보았다.

연구방법은 미학, 건축, 광고, 철학, 사회학, 문화사, 문학 및 예술 관련 서적을 통하여 레트로와 로맨틱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패션 관련 문헌과 2000년 이후의 컬렉션(Collections), 패션쇼(Fashion Shows), 보그

(Vogue) 등의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¹⁵⁾를 통해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질문지에 의한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으로 레트로로맨틱 패션 디테일에 대한 시각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범위

각 시대마다 그 시점에서 보면 지나간 것이 레트로이며 레트로가 차용되어 패션에 표현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레트로의 로맨틱 경향은 어느 한 시대의 것이 독립적으로 응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 시대양식으로서의 개념을 초월하여 서로 절충되어 나타나므로 레트로의 시기를 넓게 잡아서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로코코 그리고 크리놀린 시대인 19세기 중반까지로 한다.

둘째, 패션은 현재의 경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트렌드나 디자인 개발에 적용해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므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의 현대 패션을 분석하고 이에 나타난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을 찾아 봄으로써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디테일은 네크라인, 칼라, 소매, 포켓 등과 같이 의복의 기본 구조이면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형태와 프릴, 리본, 비즈 등과 같이 표면에 부착되는 장식적인 형태로 나뉘어 지는데 본 연구의 시각적 평가에 사용되는 디테일은 장식적인 형태이다. 장식적인 디테일 중에서도 현대 패션자료를 참고하

15) <http://www.style.com>.

여 과거 복식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특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프릴, 리본, 퍼프슬리브, 단추, 끈장식, 모피장식, 플라운스, 비즈, 러플, 자수의 열 가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지각대상자로서의 피험자는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으로 하였다.

II.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

1.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개념 및 발생배경

1) 개념

패션은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되는 문화 매체로 패션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다. 또한 패션은 변화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문화의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로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내재된 용어이다.¹⁶⁾ 즉 패션은 사회적으로 특정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다고 인식된 스타일을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¹⁷⁾ 이러한 패션에 나타나는 새로운 유행은 과거의 유행을 전제로 전개되는 데 이것은 패션이 가진 역사적 연속성의 특징 때문이다.¹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위적이며 비감성적인 것 보다는 인간 내면에 충실해지려는 강한 정신적인 욕구의 분출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은 획일화된 사고와 인간성의 부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또한 사회의 모든 기능이 디지털화 되면서 오는 무미건조한 현상으로 인간성이 상실되며 차가운 인공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16)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 1」 (서울: 교문사, 2004), p.17.

17) 이선재, 「의상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1998), p.275.

18) George B. Sproles, *Changing Appearance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87), p.18.

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추억과 향수, 아날로그 매체가 가지는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다¹⁹⁾ 이에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인간 본연으로 회귀하려는 레트로 경향이 나타나는데 레트로는 과거의 특징적인 것들을 현재의 이미지에 맞게 표현하는 것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²⁰⁾

레트로의 개념은 선행양식을 모방하는 ‘모방’ 개념, 재현의 형식으로서 ‘풍자’ 개념 그리고 사회동조 현상으로서 ‘유행’ 개념을 지니고 있다.²¹⁾ 모방은 대상의 본성을 한순간에 파악하고 그 특징을 각기 개성을 통해 제 나름대로의 기법으로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며 현대적인 의미로는 변모의 뜻이 담겨 있다.²²⁾ 풍자 역시 선행양식을 근접하게 모방하는 것이지만 다소의 변형을 통해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단순히 과거의 향수어린 모방이 아니라 과거의 요소들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반어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계산된 반복이다.²³⁾ 특히 패션에 나타나는 레트로는 현재의 디자인에 대한 성찰과 함께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다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²⁴⁾

로맨틱은 원래 무엇이든 ‘사실 같지 않은, 비현실적인, 신기한, 공상적인, 감상적인, 과장된, 열정적인 것’을 뜻하는 경멸적인 용어였다. 그러나 18세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은유적인 변천을 통해 의미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19) 김민수, 「김민수의 문화디자인」 (서울: 다우, 2002), p.169.

20) Georgina O'Hara Callan,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New York: Thames and Hudson, 2002), p.200.

21) 신명진, “남성수트(Suit)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98), p.50.

22) 박준원, 「미학특강」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2), p.66.

23) 고현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p.17.

24) G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New York: Prestel, 2005), p.166.

분화되어²⁵⁾ 1711년 ‘홀륭하다’는 말과 관련하여 쓰이면서 ‘상상력을 사로잡는다’는 뜻을 갖게 되었고, 상상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²⁶⁾ 18세기 후반에 독일로 흘러들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다가 아우구스트 슐레겔(August W. Schlegel)에 의해서 ‘고전적’이라는 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슐레겔은 ‘고전적-로맨틱’의 관계를 ‘기계적-유기적’ 그리고 ‘조형적-회화적’이라는 새로운 대응관계와 결부시켰으며 이후 슐레겔의 의미를 규정한 ‘로맨틱’의 개념은 독일로부터 유럽 각지로 전파되었다.²⁷⁾ 그 당시 로맨티시즘 작가들은 현실세계는 색채가 부족하고 정서가 메마르고 순수성이 없다고 보고 현실과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먼 세계를 동경하고 오래 전의 과거를 추억하는 경향이 짙었다. 시에 있어서도 신비스럽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시어만을 골라서 사용함으로써 용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 있었다.²⁸⁾

프라즈(Praz)나 파리바트라(Paribatra), 알베레스(Alberes)가 “로맨티시즘은 유럽의 감성에서 비롯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어떤 특정한 태도와 관련된 복잡한 문화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였듯이 로맨틱은 21세기 문화전반에 걸쳐 화두가 되고 있다.²⁹⁾ 형식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중시하여 감정, 직관, 느낌에 의존하며 주관적인 미의식을 형성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한다.

이렇게 볼 때 레트로로맨틱은 과거양식의 재현 채용, 재창조, 전파의 과정

25) 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 하는가」 (서울: 책세상, 2001), pp.25-26.

26) 릴리언 R. 프러스트(Lilian R. Frust), 「낭만주의」, 이상옥 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p.17.

27) 김영환, 임지현 편, 「서양의 지적 운동」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p.468-469.

28) 조철제, 「독일문학사」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0), p.146.

29) 김진수, 앞의 책, p.23.

을 인간 중심의 감성적 언어로 충족시키며 과거양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이다.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로맨틱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감정과 정신적인 풍요를 우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장식적이며 여성스럽게 표현된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외적 기법과 형식, 내적 의미와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친 모든 요소들이 혼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고도로 발달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을 일으킨다.³⁰⁾ 즉,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시대적 공간적, 상황적 현상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발전이 아닌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는 것이다.³¹⁾

그러므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레트로로맨틱 패션을 기존의 보편적 패션 체계에서 벗어나 근세의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에서 근대 로맨틱시대인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장식 요소들이 반영된 2000년 이후에 나타난 패션의 경향으로 본다. 또한 광의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다양하게 전개된 복고주의, 역사주의, 절충주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장식적이며 여성적인 특성으로 전개되는 패션을 의미한다.

2) 발생배경

① 사회문화적 배경

패션은 사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저항할 수도 있

30)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 「복식」, 38 (1998), p.382.

31) 박혜선,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 (서울: 학문사, 2002), p.26.

는 중요한 도구로 패션의 흐름과 유행은 항상 이를 이용하는 인간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의 흐름에 바탕을 두고 있다.³²⁾ 그러므로 2000년 이후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발생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1세기 사회·문화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커다란 시대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 번째가 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로의 이행이다. 인류는 지난 수천 년간 농경사회에서 살다가 18세기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에 진입하였다.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인간의 노동, 생활양식, 문화적 형태, 인간관계, 사회제도 등에 실로 다양하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³³⁾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특히 90년대 중반 '인터넷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세계는 다시 지난 200년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진입하게 된다.³⁴⁾ 디지털 정보처리 기술과 컴퓨터의 발달 등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 가는 현대 정보사회는 IT기술의 발달로 국가간, 지역간, 개인간, 정보의 흐름이 빨라져 우리의 사회생활, 경제활동, 문화예술에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³⁵⁾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상태로 접속하여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생활방식의 전환을 가져 오며 유비티즌

32) Elaine Webster, "Dressing for Real and Imagined Space," *The Journal of Cloth and Culture*, 4(2) (2006), p.167.

33) Don Tapscott, *Blueprint to the Digital Economy* (New York: McGraw Hill, 1998), pp.6-9.

34) Don Tapscott,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ew York: McGraw Hill, 1998), p.15.

35) 정미진, "꽃문양을 활용한 레트로 테크놀러지 패션 디자인 연구: CAD를 활용하여," 「복식」, 56(7) (2006), p.106.

(ubitizen)의 라이프 스타일은 컴퓨팅(Computing),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접속(Connectivity), 콘텐츠(Contents), 조용하고 편리함(Calm)의 '5C'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태의 네트워크에서도 모든 기기간의 연동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5Any: Anytime, Anywhere, Any Device, Any Thing, Any Network)을 지향하고 있다.³⁶⁾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유비쿼터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새로운 생각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국면이 되고 있으며 컴퓨터는 이제 환경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활 영역으로 침투해 간다.³⁷⁾ 특히 패션에서 입는 컴퓨터의 개발은 획기적인 일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³⁸⁾ 입는 컴퓨터는 커뮤니케이션 장치들과 착용자를 위해 감지할 수 있는 옷으로 전환되는 센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잠재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개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³⁹⁾

이와 같은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21세기 패션이 경제성, 기능성, 소비자 접근성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패션산업에서의 디지털화는 탈 인간화, 획일화, 숫자화, 정형화의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었다. 의복이 가지는 인간적 내면세계, 아날로그적 정취와 정감, 아날로그 색상이 가지는 은은함 등을 빠른 속도로 파괴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2000년 이후 과거의 인간적이며 낭만적인 것을 흠모하는 레트로로맨틱 패션이 유행하게 된다

36) 임신영, 허재두, “상황인식 컴퓨터 응용기술 동향,” 「전자통신 동향분석」, 19(5) (2004), p.25.

37) 김지연, “유비쿼터스 환경 특성에 의한 디지털 의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 57(3) (2007), p.34.

38) 권기영, “과학기술과 결합된 패션디자인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 (2004), pp.91-96.

39) HyeSook Park & JaeJung Lee, “Wearable Technology with Future Fabr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 30(12) (2006), p.1809.

두 번째, 9·11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붕괴시키고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부 펜타곤(Pentagon)청사를 파괴한 알카에다의 테러는 엄청난 대참사를 유발하였다. 수천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탄생한 이후 미국 본토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일시에 희생된 것이다. 이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새로운 위협요소인 '테러'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울 것을 천명하였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의 전쟁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에서도 전개하여 미 국토방위청을 신설하고 항공기 탑승기의 보안검색과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있었을 뿐 만 아니라 평범한 미국인의 삶과 의식에도 커다란 혼란이 오기 시작하였다. 즉 일상생활에서도 늘 테러의 위협을 인지하게 되고 심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 보복심리가 팽배하였다. 또한 많은 미군 전상자가 생김에 따라 반전무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전쟁에 대한 상반된 의견으로 사회가 어수선하게 되었다.

9·11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현대 패션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물질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게 되어⁴⁰⁾ 암울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옛것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며 과거의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사회에서의 부귀영화를 동경하였고 그 당시의 복식문화를 되살리고 싶어 하였다.⁴¹⁾ 이렇게 되살아난 과거에 대한 향수는 경쾌한 색상과 화려한 디테일로 표현되어 혼탁한 시대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부

40) 양보라, “9·11테러와 이라크전쟁이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4), p.60.

41)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5), p.117.

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과거의 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는 패션만이 가진 순발력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다.

② 복식사적 배경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발달배경을 복식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려면 19세기 이후의 흐름을 레트로와 로맨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레트로와 로맨틱은 인류 역사를 볼 때 패션 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순환 반복되어 왔다. 19세기 이후의 큰 흐름을 보면 19세기 전반의 신고전주의, 19세기 중반의 낭만주의, 19세기 후반의 사실주의, 20세기 전반의 모더니즘,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어져 왔고 21세기에는 레트로와 로맨틱이 혼합된 레트로로맨틱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복식사적 배경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먼저 19세기의 낭만주의를 살펴본 다음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속에서의 '태생적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9세기는 산업사회이자 근대국가의 형성기로 수만 년간의 농경사회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18세기 말부터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에 들어갔다.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으로 불붙기 시작한 근대국가가 탄생된 시기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주도세력이 과거의 왕과 귀족에서 재산과 기술을 가진 신흥 부르주아지 즉, 시민계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가 세계 각국으로 번져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자유민주, 시민의식이 팽배해진다.

또한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 제철, 면방직 공업을 파격적으로 발전시켜 철로, 기선, 면직의류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귀족이나 부유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사고와 생활양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자본주의의 태동,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한 왕정의 붕괴와 시민사회의 형성은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서양사에서 19세기는 근대사회가 형성되고 발전한 시기이며 서양의 복식문화가 근대화되고 시민복식이 정착되어 가는 대단히 흥미 있는 시대이다.⁴²⁾

서양복식사에서 19세기 복식의 특징은 근대복식과 시민복식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복식사적 특성은 면방직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노동자들의 손에 의존하였던 공장 수공업에서 방직기계의 발명으로 공장제 기계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직물이 대량생산되고 복식의 재료가 되는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등의 가격이 파격적으로 하락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근대국가에서 새로운 시민계급으로 성장한 모든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복식을 향유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궁궐이나 저택에 머물던 귀족, 특권계급만의 복식이 일반 시민들의 복식에 접근함에 따라 복식의 기능성, 편리성을 중시하게 되었다.⁴³⁾

근대국가 산업사회의 근대복식과 시민복식의 발달 배경 속에서 19세기 초반에 처음 나타난 것은 과거 그리스 로마를 회고하는 신고전주의 성향의 레트로이고 이후 본격적으로 떠오른 것이 19세기 레트로로맨틱이다⁴⁴⁾ 이 시기의 레트로로맨틱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시대를 동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 산업화의 길을 걷던 19세기 중반에 이와 같

42)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p.274.

43)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London: Harry N. Abrams, Inc., 1987), p.385.

44) 안광숙, 앞의 글, pp.20-21.

은 레트로로맨틱 패션이 갑자기 출현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산업혁명, 프랑스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어지던 19세기 초반이 근대화, 산업화, 자유화, 민주화, 시민사회 형성을 향한 사회적 대변혁기였다면 나폴레옹 몰락 후 오스트리아 빈(Wien) 회의에서 왕정 보수주의자인 메테르니히 수상이 주도하여 만든 소위 '빈 체제'는 왕정복고와 구체제의 유지였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8세가 런던에서 파리로 귀국하여 1815년에 왕정이 복고되었다. 즉, 당시의 시대 배경은 산업혁명 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막대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한 부르주아지 시민계급과 왕정복고 체제에서 다시 권력의 주변에 나타난 귀족계급이 같이 어우러진 혼합사회(mixed society)였다.⁴⁵⁾

이런 부르주아적 기반위에 세워진 왕정체제하의 복식문화는 부활된 귀족 풍으로서 풍부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더욱 환상적으로 되었고 복식도 사치를 더해 유럽전역은 예전의 귀족 사회로 돌아간 듯한 복식의 양상을 띠었다. 과거의 봉건귀족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동경하였고 그 당시의 복식문화를 되살리고 싶어한 그들은 의상차림에 호화로운 르네상스양식과 로코코 양식을 나타내었다.⁴⁶⁾ 말하자면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미국독립의 시대적 영향으로 19세기 초반 풍미하였던 아폴로적인 특성, 즉 지성, 이성, 평온 등이 19세기 중반의 왕정복고 시대에는 디오니소스적 특성, 즉 감성, 직관, 강렬함 등으로 대체되는 것이다.⁴⁷⁾

19세기 중반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인간의 육체와 낭만적 감성을 중시한 스타일로 코르셋으로 가늘게 조인 허리 곡선 페티코트로 넓게 부풀린 스커트나 요란스럽게 장식된 소매 깃과 로코코 양식의 모자가 유행한다⁴⁸⁾ 그러

45) Gilberte Rodrigue, *Costume et de la Mode* (Paris: Grund, 1984), pp.243-245.

46) 정홍숙, 앞의 책, p.300.

47) 이경아, 앞의 글, p.62.

나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단순히 산업혁명 이전 중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복식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의 획기적 직물공업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사회, 과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과거의 복식을 로맨틱하게 재창조(re-creation)한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꽃을 피우던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20세기에 들어 자취를 감추게 된다. 20세기 과학기술의 발달 결과 세계를 지배하던 기능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로 특징지어지는 모더니즘이 건축, 미술뿐만 아니라 패션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급격하게 팽창한 인구와 산업사회로의 이행에서 가속화된 도시의 팽창으로 '대중'에 의한 사회가 대두되었는데, 이는 신고전주의 시대 복식이 시민계급의 대두와 관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패션의 변화를 유발하였다.⁴⁹⁾ 신고전주의나 레트로로맨틱과 결별한 모더니즘 복식은 모든 것을 합리성과 기능성으로 판단하려는 당시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자질구레한 장식을 없애고 정확한 수학적 비례에 의한 전체적인 균형을 중시하는 보다 단순한 형태의 근대적 트렌드를 유행시켰다. 그러나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서구의 중산층 중심의 개념은 사회·경제적으로 정보사회·후기 자본주의사회화 되면서 소비자사회가 되었고 여성의 우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모더니즘으로부터 20세기 중반 이후 탈모더니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화현상으로 이행하게 되었다.⁵⁰⁾

모더니즘은 자본주의의 대량생산체제(mass production), 대량소비(mass

48) Stella Blum, *Ackermann's costume Plate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78), pp.76-87.

49) 함연자, 김민자, “20세기 초 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형식의 명료성을 중심으로,” 「복식」, 56(4) (2006), p.155.

50) 최현숙, “현대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 「동덕여성연구」, 제4호, p.138.

consumption) 문화에 바탕을 두고 과학기술이나 인간의 생활여건 생활의 가능성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획일적 기능주의가 가져오는 사회의 경직화, 물질만능, 비인간화, 규격화, 환경파괴, 인간정서의 메마름 등은 패션에서도 새로운 트렌드의 탄생을 갈망하였고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태어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요소, 즉 다원적, 합리적, 역사적인 경향이 절충된 것으로 그 안에서는 장르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엄격한 구분이 사라졌으며 결정론보다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⁵¹⁾ 포스트모더니즘에 나타나는 불확정성의 개념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내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의미체계, 즉 패션을 창조하고 수용하는 디자이너 및 대중의 태도와 방식을 의미한다.⁵²⁾

복식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전환점이 된 계기는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의 뉴룩(New Look)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허리가 잘록하며 가슴이 풍만하고 무릎길이의 스커트는 8개의 라인을 넣어서 넓게 만들었다. 21세기 여성의 눈으로는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엔 혁명이었다.⁵⁴⁾ 뉴룩은 여성성의 부활을 의미하며 그 이후 복고적이며 로맨틱한 요소가 시대의 흐름을 타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1960년대에도 과거에 유행하였던 자유스러운 복고풍을 동경하는 트렌드가 생겨났다. 젊은 세대들은 획일적으로 대량생산된 의복보다는 여러 요소들이

51) 박신영, 조규화, “로맨틱 복식 양식 연구: 21세기 전후 여성 패션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1(1) (2007), p.50.

52) 이정후, 양숙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Indeterminacy),” 「복식」, 45 (1999), p.180.

53) Valerie Steele, *Fifty Years of Fash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1-3.

54) 동아일보,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 뉴룩 발표,” (2007.2.21), A31.

결합되어 자신들의 사고와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들은 특히 대량생산이 인간생활의 획일화를 가져오고 자연을 황폐시킨다고 생각하고 이에 반발하여 히피풍의 옛날 옷을 부활시켰다 긴장발과 집시풍, 그리고 인디언의 가죽 튜닉 등을 즐겨 입었다.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와 오시 클라크(Ossie Clark), 빌 깁(Bill Gibb) 같은 영국 디자이너들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로맨틱 룩을 선보였다.⁵⁵⁾

19세기 이후 복식의 흐름을 볼 때 두드러진 점은 전쟁, 혁명, 경제위기 등 사회의 대변혁이 있을 때 항상 복고적이고 낭만적인 요소의 복식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18세기 말과 19세기의 나폴레옹 전쟁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레트로로맨틱이 유행하였듯이 1970년대 복식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세계경제위기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는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기업의 대량 도산과 실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사회적 변화로 세계 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1970년대 경제위기의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무의식중에 과거로 회귀하여 여성스러움으로 자기 자신을 재인식하려는 ‘뉴 로맨티시즘(New Romanticism)’이 유행하였다. 뉴 로맨티시즘은 넓게는 핑크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차림은 반 핑크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핑크의 단정치 못함을 우아함으로, 저속함을 고귀함으로, 캐주얼한 차림을 성장 차림으로 대신하였다. 핑크패션과 달리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직물과, 우아함, 아름답게 차려 입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뉴 로맨티시즘 복식은 역사주의적 요소와 결합되면서 디자이너들에게 채택되어 더욱 더 매혹적으로 발달하였다.⁵⁶⁾ 1980년대 초 패티 벨(Patty

55) 이경아, 앞의 글, p.64.

56) 이경아, 위의 글, p.64.

Bell)과 제인 칸(Jane Kahn)이 보여주는 의상을 보면 매우 개성이 강하며 상상력이 풍부하다. 기존의 핑크스타일에 비해 보다 여성적이며 다원적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그림 1). 또한 영국 런던 레인보우 극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녀의 옷차림을 봐도 저항적이며 혐오스러운 것 보다는 훨씬 안정되며 부드러운 느낌이다(그림 2).⁵⁷⁾

뉴 로맨티시즘 이후 레트로로맨틱은 본격적인 포스트모던기에 들어 전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성은 80년대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패션은 종전처럼 하나의 패션경향이 나타나면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혼재하듯이 이 시대에도 다양한 경향이 함께 전개되었다.⁵⁸⁾ 즉, 시스루소재를 사용하여 여성의 관능미를 강조하는 레트로로맨틱 스타일 프릴, 레이스, 리본 등을 사용하고 금, 은 등의 라메와 타피스트리 등을 즐겨 사용하는 바로크, 로코코적 장식주의 그리고 천연소재를 선호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강조하는 에콜로지 룩(ecology look) 등이 혼용되었다. 결과적으로 80년대 패션은 절충, 해체, 은유, 상징의 특징으로 복고경향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났다.⁵⁹⁾

항상 세기말에 복고적 트렌드가 나타났듯이 1990년대에도 20세기를 마감하는 세기말적 복고풍이 유행하였다. 세기말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기말적 풍조와 미래지향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다양한 트렌드가 뒤섞이고 빠르게 변화하였다.⁶⁰⁾ 앞에서 기술한 디지털사회의 진입, 9·11사태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 등 새로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또

57) Ted Polhemus,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1994), p.95.

58) 정홍숙, 앞의 책, p.404.

59) 안광숙, 앞의 글, p.65.

60) Maggie Pexton Murray, *Changing Styles in Fashion: Who, What Why*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89), p.95.

한 20세기 후반부 포스트모더니즘의 우산아래서 명맥을 이어오던 레트로와 로맨틱이 새로운 세기인 2000년 이후 레트로로맨틱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⁶¹⁾

2.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고찰

1) 실루엣

패션의 실루엣이란 패션의 외형선 즉 의복의 전체적인 윤곽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패션의 표면선과 외계와의 접촉면을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즉 의복의 외곽선에 대한 2차원적 평면의 영역으로, 개별적인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하며 패션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실루엣과 유사한 용어로는 룩(look)과 스타일(style)이 있으며 이 용어들은 복식의 특징을 실루엣 뿐만 아니라 색채, 소재, 디테일, 차림 등 까지도 포함하여 전체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된다.⁶²⁾

실루엣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어깨, 허리, 밑단에 있어서 각 부위의 높이와 폭 그리고 어깨에서 밑단까지 흐르는 라인의 상태를 들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허리가 전체적인 라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허리의 위치, 길이, 형태에 따라 스타일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실루엣은 유행에 가장 민감하여 시대와 문화, 때와 장소,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창조되고 있다.⁶³⁾

실루엣은 크게 나누어 보면 몸의 웨이스트 부분을 꼭 끼게 하고 위, 아래를 넓게 하는 아우어글라스 실루엣, 몸의 어느 부분을 특히 강조하지 않고

61) 유진경, 앞의 글, p.426.

62) 히로코 이즈카(Hiroko Iizuka) 외 2명, 「복식디자인」, 조진숙, 이민경 역 (서울: 수학사, 2005), p.89.

63) 김민자, 앞의 책, p.151.

상하가 거의 비슷한 폭을 유지하는 스트레이트 실루엣 몸의 중심 부분을 넓게 부풀린 벌크 실루엣으로 나눌 수 있다.⁶⁴⁾

18세기 로코코시대에서부터 근대 로맨틱스타일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우어글라스, 즉 X자형 실루엣이 주로 사용되었다. 로코코의상은 섬세한 여성적인 곡선과 넘칠 듯한 장식의 요소들인 리본이나 레이스, 프릴 등으로 많이 장식하였는데 이와 같은 장식 과잉으로 전체 형에도 호화스러움을 나타내어 가는 허리와 더불어 스커트 부분을 강조하여 확대시켰다⁶⁵⁾ 18세기 실루엣은 가운 밑에 입은 돛형 후프와 같은 내부구조물의 형태와 종류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돛형 후프는 18세기 여성복의 실루엣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을 일으켰다. 영국에서는 후프드 페티코트(hooped petticoat) 또는 임프로버(improver)라는 명칭으로 불리었고 이것이 프랑스에 전해지면서 새장 형태와 비슷한 구조상의 특징 때문에 빠니에라고 불렀다⁶⁶⁾ 로맨틱 시대에는 스커트의 실루엣을 살리기 위해 크리놀린이라는 버팀대를 사용하였는데, 역사주의 디자이너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크리놀린이야말로 여성스럽고 섹시하며 활기가 넘치는 디자인이라고 극찬하였다⁶⁷⁾

그러나 18세기 후반에는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자연스러운 모습을 중요하게 여겨서 신체의 선을 살린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이와 같이 실루엣은 사회 변화나 분위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며 패션의 특성을 나타낸다.

현대패션에서도 실루엣은 스타일 형성의 중요한 기준이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실루엣은 X자형으로 소매와 스커트에 볼륨을 주고 허

64) 이선재, 앞의 책, p.224.

65) 이정옥 외 2명, 「서양복식사」(서울: 형설출판사, 1999), p.255.

66) 이정옥 외 2명, 위의 책, p.256.

67) Richard Martin, *The St. James Fashion Encyclopedia: A Survey of Style from 1945 to the Present* (Detroit: Visible Ink Press, 1995), p.410.

리는 조여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 스커트의 형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디테일이 사용되는데 셔링이나 턱, 주름 등으로 부피감을 주거나 페티코트를 사용하여 다소 과장된 실루엣을 연출하기도 한다. 또한 테프타, 망사 등의 뽀뽀한 소재를 사용하여 형태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때와 장소, 용도에 따라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사용되는데 신체의 선을 살려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식적인 디테일을 부착하여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을 표현한다.

<그림 3>은 02/03 F/W 기 라로쉬(Guy Laroche)의 작품으로 크리놀린 스타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소매 끝에 장식된 나뭇잎의 레이스도 현대화된 레트로로맨틱의 이미지이다. 레트로로맨틱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절충되어 나타나는데 다수의 양식이 시간, 공간, 상황을 초월하여 서로 조합, 조화되어 표현된다.⁶⁸⁾ 그러므로 바로크나 로코코 등의 시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과거의 디테일이 현대적으로 재창조된다.

<그림 4>의 작품도 전형적인 크리놀린 드레스인데 주름잡은 장식디테일로 스커트를 더욱 강조하였다. 19세기에는 유제니 왕후가 몸매를 감추기 위해 폭이 넓은 드레스를 선호하면서 유행이 되었으나 현대 패션에서는 부와 권위 그리고 정신적인 풍요로움까지 표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02 S/S Ji Haye의 작품에서도 X자형 실루엣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그림 5). 로코코시대 마담 풍파두르(Madame Poupadour)의 로브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21세기 스타일로 현대화 되면서 세련미를 더한다. 셔링이나 러프 대신 넓은 폭의 소매와 커다란 소매깃 그리고 어깨를 덮는 큰 칼라는 절제된 화려함과 우아함을 연출한다. 또한 비대칭의 여밈에서 오는 기하학적인 느낌은

68) 배정민, 김영삼,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과 다원적 절충주의 분석 연구,” 『복식문화연구』, 14(4) (2006), pp.658-659.

과거 양식의 무한한 재창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같은 로코코시대의 복식에서 발상된 디자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케이트와 로라 멀리비(Kate and Laura Mulleavy)의 시폰원피스에서 레트로 로맨틱 스타일을 잘 찾아 볼 수 있다(그림 6). 과거의 역사를 응용하여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지나간 세계에 대한 회의와 향수로 재현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영감에 따라 역사적 아이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이다.⁶⁹⁾ 소매 아래 부분의 풍성하게 접어 올린 형태는 로코코시대 로브의 여러 층의 플라운스를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재창조 한 것이며 리본 대신 길게 이어지는 쉬폰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진 장미꽃은 로맨틱 무드를 고조시킨다⁷⁰⁾ 가볍게 말아서 만든 장미꽃을 스토크 모양대로 가슴에 달고 스커트 밑단에도 화려한 프릴 형태로 장식하였다.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하여 양쪽에 뺏뺏한 페티코트와 같은 심을 대주었다.

18세기 로코코시대의 대표적인 로브중의 하나인 와토 가운(Watteau Gown)도 현대 패션에 많이 응용되어지는 실루엣이다. 화가인 와토의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여자 가운의 형태에서 유래한 것으로 뒤 목둘레선에 큼직한 두 개의 맞주름이 잡혀 있어서 커다란 주름의 볼륨과 단까지 넓게 퍼지는 주름의 흐름이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한다.⁷¹⁾ WWD에서 2007년 봄을 겨냥하여 제시한 트렌드중의 하나인 로맨틱스(the romantics)에서 와토 가운의 실루엣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7>은 로다르트(Rodarte)의 드레스로 뒤에 와토 가운 형태의 파넬을 만들어 리본을 달아주었다. 필리스 톨토다(Phyllis

69) 박윤정, 양숙희,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Historicism)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1) (2000), p.100.

70) WWD The Magazine, spring (2007), p.37.

71)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1996), p.231.

Tortora)와 키스 유뱅크(Keith Eubank)는 이전으로부터 유래된 많은 스타일들의 혼재로 로코코시기 전반의 예술이 매우 절충적이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스타일의 재생은 이 시기의 여성 복식에서 명백히 보여진다고 하였다.⁷²⁾ 이렇게 과거 양식에서도 문화의 혼재 속에 실루엣과 디테일, 색채 등이 혼용되었으며 현대 패션에서는 레트로의 과정을 거치며 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소재

패션의 스타일을 특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소재의 선택이 필요하다. 의복의 상품가치는 실루엣이나 디자인 뿐 만 아니라 소재가 갖고 있는 색상, 무늬와 촉감과 같은 심미적인 요소와 기능성에 의해 좌우되므로 소재의 종류와 특징을 바탕으로 주제와 트렌드 및 감각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⁷³⁾ 특히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디테일이 섬세하고 장식적이므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과거 복식에서 응용된 디자인이므로 그 느낌을 잘 연출하기 위해서 알맞는 소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레트로의 측면에서 과거 복식에 사용된 소재들을 살펴보면 현대 패션과 거의 유사하다. 그 소재들은 매우 화려하며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완성된 의복은 엄격하고 위엄이 있으며 진지한 느낌을 자아냈다.⁷⁴⁾ 르네상스 시대에는 실크와 벨벳, 금실로 무늬를 짠 브로케이드 등이 사용되었고 바로크 시대에는 무거운 실크, 브로케이드, 울과 실크의 교직도 개발되었다. 또한 비치는 얇은 실크인 모슬린 드 수아(mousseline de soie)가 나타

72) Phyllis G. Tortora & Keith Eubank, *Historic Costume: 2nd edition* (New York: Fairchild, 1994), p.32.

73) 김은애 외 7명, 「패션소재기획과 정보」 (서울: 교문사, 2000), p.43.

74) James Laver, *Costume and Fashion: A Concise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2002), p.127.

나 면으로 만든 의상 위에 겹쳐 입는 우아한 모습도 유행하였다. 르네상스 복식에서부터 애호되었던 레이스도 많이 사용되어 생산과 기술이 향상되면서 레이스가 남용되었고 이는 마치 색색의 꽃이 의상에 가득 피어 있는 듯한 형상이 되었다.⁷⁵⁾ 로코코시대에 의복재료로 사용된 직물들은 태프타, 새틴, 다마스크, 면 등이다. 특히 실크로 된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된 레이스의 유행으로 레이스 장식이 많이 사용되어 여성의 섬세한 분위기가 한층 돋보였다. 또한 프린트된 면이 실크 못지않게 선호되어 대단히 유행하였는데 부드럽고 환상적인 파스텔톤의 꽃무늬, 줄무늬가 주로 사용되었다. 근대 로맨틱시대에는 우아하고 얇은 재료가 선호되어 머슬린이나 거어즈, 실크 등이 사용되었다. 크리놀린 시대에는 고급의 울, 알파카, 모헤어, 벨벳, 거어즈, 툴, 머슬린, 린넨이나 섬유공업의 발달로 모, 견, 면 등 모든 직물이 유행하였다. 특히 태프타는 특유의 환상적인 질감과 촉감으로 인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⁷⁶⁾ 이와 같이 각 시기마다 산업의 발달과 경제, 무역 등이 연관되어 많은 직물이 생산되었으며 의복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주로 쓰이는 소재는 공단 노방, 벨벳, 면, 브로케이드, 실크, 태프타, 새틴, 오간자 등이며 천연섬유 뿐 만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합성섬유도 많이 쓰인다.⁷⁷⁾ 이와 같은 소재들은 여성스러우면서 장식적인 디자인에 적합하며 적절한 소재의 사용으로 디자인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다 패턴물인 경우 여러 가지 꽃무늬가 주로 사용된다.

75) 정홍숙, 앞의 책, p.205.

76) 백영자, 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서울: 경춘사, 1998), pp.212-292.

77) Maria Constantino, *Fashion of a Decade* (New York: Facts on File, 1992), p.40.

<그림 8>은 05/06 F/W 안토니오 베라르디(Antonio Berardi)의 작품으로 화려하였던 과거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소재는 브로케이드로 금색과 하늘색의 조화가 고급스러우며 바로크 로코코의 우아한 분위기를 잘 재현하였다.

벨벳 역시 귀족적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재로 레트로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표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광택을 주거나 번아웃 가공을 하여 무늬를 만드는데 이러한 효과로 입체감이 있으며 윤택한 느낌이다.⁷⁸⁾ 르네상스 시대에는 벨벳에 자수를 놓거나 여러 가지 보석을 달아 화려함을 더 하였고 이후 벨벳은 항상 고급스러우면서 여성적인 소재로 현대 패션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02/03 F/W에 도나 카란(Donna Karan)은 진한 자주색의 번아웃으로 무늬를 낸 벨벳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매우 귀족적이며 우아하다(그림 9). 과거의 화려하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잘 살린 작품으로 소재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그림 10>도 06/07 F/W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번아웃의 벨벳소재 작품으로 무늬가 매우 정교하다. 레이스와 함께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로코코시대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이다 블루걸(Blugirl)의 06/07 F/W 미니 드레스는 단색의 벨벳을 다른 소재와 함께 사용하여 광택을 부각시킴으로써 로맨틱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파일에 의해 연출되는 두가지 색상의 효과는 신비로우면서도 오묘한 분위기를 풍겨서 그 의미가 매우 함축적이다. 벨벳으로 만든 꽃장식과 작은 가방은 과거의 장식적인 요소를 응용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다(그림 11).

78) Phyllis G. Tortora, Robert S. Merkel, *Fairchild's Dictionary of Textile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96), p.611.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테프타를 주로 사용하여 탄력있는 볼륨감을 주며 그 안에서 복고미를 표현한다. <그림 12>는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으로 줄무늬로 된 테프타의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깊게 파인 목선과 소매장식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역사주의적 성향을 잘 찾아 볼 수 있다.

3) 색채

자연의 풍토와 문화는 사람들의 색기호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색채에 대한 기호 감정은 역사적 전통과 시대적 변천, 문화의 발달로 생활환경 속에서 변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색채 성향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해온 색채에 대한 전통이나 특이성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의 기후와도 연관된다. 사람들의 색에 대한 좋고 싫음의 감정으로 인한 선호 경향은 개인차가 있으며 이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지리적 조건, 사회 조건 및 개인의 생활환경의 영향이 지배적이다.⁷⁹⁾

특히, 패션에서 색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색채라는 조형요소를 통해서 디자인 의도를 나타내고 또한 입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⁰⁾ 뿐만 아니라 색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미적 감정으로 가장 쉽게 표현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색채를 통하여 시대적 여건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미적 감각까지도 파악 할 수 있다. 트리니 우델(Trinny Woodall)과 수잔나 컨스탄틴(Susannah Constantine)에 의하면 색채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절제가 잘 되

79) 조동제 외 2명, 「색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문사, 2001), p.131.

80) Andrew Kopkin, *Inside the Fashion Business: Mysteries of Fashion Revealed* (New York: John Weley and Sons Inc., 1981), p.43.

며 매우 매력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⁸¹⁾

어느 시대든지 고유한 문화 속에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제도 관습, 사상이 드러나는 의복의 색채는 독특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을 통하여 정신적인 경향이나 정서를 살펴볼 수 있고 의복의 심미적인미를 구체화시키게 된다. 색채의 상징효과는 인간의 감수성이 점차 복잡해져서 주변의 사상과 관련을 지어가며 그 효과를 확대하게 된다.

18세기 프랑스 로코코의 조형문화 중에서 복식에 주어진 명칭은 특이한 것이 많다. 그 중에 색채에 대한 명칭을 보면 징검돌, 런던의 쓰레기, 요정의 다리, 독을 마신 원숭이, 슬픈 여자 친구, 멧쟁이 내장, 변비색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색채 자체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 때문에 그 색에 새로운 매력이 부여되었다.⁸²⁾

그러므로 색채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행색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⁸³⁾ 르네상스나 바로크시대에는 권위와 위엄을 존중하여 황금빛, 진한 자주색 등의 원색을 선호하였다. 특히 금색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금속성의 광택감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환희와 번영의 색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자색은 조개에서 추출한 염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우 희소성 있는 고귀한 색으로 간주되었다.⁸⁴⁾ 로코코시대에 들어서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18세기 초 뉴턴(Issac Newton)이 빨강, 노랑, 파랑이 빛의 3원색이고 다른 색은 삼원색이 서로 혼합되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알아내고 마이어(Johann Tobias Mayor)가 이를 혼합하는 원칙을 세워, 인간의

81) Trinny Woodall & Susannah Constantine, *What You Wear Can Change Your Life* (New York: Riverhead Books, 2004), p.48.

82)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3), pp.144-145.

83) 양리나, 최나영, 「패션연출」 (서울: 대왕사, 2000), p.125.

84) 이홍규, 「칼라이미지 사전」 (서울: 조형사, 1994), p.129.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91가지 명암과 9,381가지의 색상을 얻었다.⁸⁵⁾ 이러한 과학적 색채감각으로 인해 직물에 있어 색채의 조화는 상당히 세련되었다. 많이 애용된 색은 레몬색이나 황토색 등 노란색 계통을 비롯하여 녹색이나 분홍색 등이 있다. 기술의 발달로 색상이 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으나 역시 황색톤을 주조로 하였다.⁸⁶⁾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색상은 로코코풍의 파스텔톤이다. 로맨틱한 이미지를 색채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파스텔톤을 주조색으로 하고 차분히 가라앉은 톤을 보조색으로 하는 배색이다. 밝은 톤의 색상은 난색계열이든 한색계열이든 다양하게 사용해도 좋지만 차분한 톤은 따뜻한 색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⁸⁷⁾

07/08 F/W의 색채경향을 보면 순수한 분홍계열과 함께 녹색이 주요 색채로 등장한다. 현대인들은 세련된 단색의 냉엄하고 신비한 인상 대신 온화함에 관심을 갖는다. 온화함으로부터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파스텔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단색의 강한 원색은 몸을 움직이지만 파스텔톤은 정신을 움직이고 가벼운듯하면서도 순수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특징이 있다.⁸⁸⁾ 이와 같은 파스텔톤이 유행색으로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데 유행색이란, 어떤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입혀지고 선호도가 높은 색상을 말한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특별히 어떤 색상과 많이 부딪치며 또 그 색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유행색의 속성 때문이다. 유행색이란 색채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반복되

85) François Boucher, 앞의 책, p.293.

86) 정홍숙, 앞의 책, p.240.

87) 조동제 외 2명, 앞의 책, p.105.

88) 김종복, 「패션트렌드컬러 키워드」 (서울: 도서출판 시대, 2003), p.13.

는 것이며, 색의 유행은 인간의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와 어떤 암시에 의하여 생긴다고 한다.⁸⁹⁾

발렌티노는 07 S/S에 파스텔톤의 쉬폰, 노방 등을 사용한 드레스를 발표하였는데 보기에는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힘을 갖는다(그림 13). 빌 블라스(Bill Blass)의 실크공단으로 만들어진 이브닝드레스도 색채로 인해 여성적이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연출한다(그림 14). 디자이너는 색채를 통하여 장식적이며 화려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내재된 의미도 드러낼 수 있다. 분홍색은 로맨틱의 전형적인 색상으로 꽃을 연상시키며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시킨다. 블루마린이 01 S/S 컬렉션에서 발표한 분홍색의 원피스는 실루엣과 잘 어울리며 온화한 느낌을 준다(그림 15). 구찌(Gucci)는 보라색 새틴으로 플라운스를 만들어 여성적이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강조하였다(그림 16). 보라색은 중후하고 화려하며 다소 허영적인 의미를 갖는 색채로 현대인의 복식심리와도 부합한다.

4) 디테일

린다 왓슨(Linda Watson)이 이야기 하듯이 옷을 입는 것은 우리 신체에 중요한 네 번째 기능으로 먹고, 숨쉬고, 잠자는 것 다음으로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식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여 꾸밈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⁹⁰⁾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는 장식디테일을 통하여 섬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예로부터 인간은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재창조하는가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복식문화의 발달과 함께 의복은 단순한 물질 이상으로 착용자와 정신적인

89) 이순홍 외 3명, 「복식문화와 유행정보」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171.

90) Linda Watson, *20th Century Fashion* (New York: Firefly Books, 2004), p.7.

교류를 하면서 착용자의 의지나 감정까지 표현하게 되었다.⁹¹⁾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인간의 소박한 바람은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식을 고안해 냈으며 시대마다 유행하였던 의복에는 당시의 미의식과 의복구성기술을 반영한 독특한 장식이 보여지기 마련이다. 장식이 가해진 복식은 때로 시대적 이념과 역사적 상황 등의 상징적 이미지도 내포할 수 있었다.⁹²⁾

디테일은 넥라인, 칼라, 소매, 포켓 등과 같이 의복의 기본 구조이면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형태와 프릴, 리본, 비즈 등과 같이 표면에 부착되는 장식적인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는 장식적인 디테일이 많이 사용된다. 18세기에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장식적인 디테일의 사용이 두드러져서 스모킹, 셔링, 주름, 애플리케, 자수, 턱 등으로 우아하고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러플, 퍼프, 플라운스, 리본, 모피, 끈 등으로 수평장식을 하기도 하였다.⁹³⁾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사용되는 디테일은 로코코시대에 귀족들의 사치스런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식을 화려하게 꾸몄던 것들로 재현과 재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패션자료를 분석한 결과,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 프릴, 러플, 플라운스, 비즈, 자수, 리본, 끈장식, 모피, 단추, 셔링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릴, 러플, 플라운스는 곡선적인 섬세함으로 여성스러우며 장식적인 표현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림 17>은 02 S/S 발렌티노(Valentino)의 작품으로 목선과 소매, 스커트의 프릴이 매우 장식적이다. 프릴을 줄로 만들어 달아줌

91) Carson Kressley, *Off the Cuff* (New York: Dutton, 2004), p.5.

92) 이순홍,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2003), p.21.

93) 나현신,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19C와 20C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p.58.

으로써 더욱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선을 집중시킨다. 발렌티노는 05/06 F/W에서도 프릴을 많이 사용하여 레트로로맨틱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그림 18). 블라우스의 앞단과 칼라, 소매 끝에 작은 프릴을 덧붙여 섬세하면서도 로맨틱하게 표현하였다.

러플은 옷 가장자리나 솔기 부분에 레이스나 천으로 셔링 또는 주름을 잡아 장식한 것으로 프릴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너풀거리는 느낌을 갖는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잘 어울리며 주로 쉬폰 등의 얇은 소재를 사용한다. 05/06 F/W 발렌티노의 작품에서 투명하게 비치는 연한 살구색의 쉬폰으로 끝에 레이스를 달고 좁은 기계주름을 잡아서 만든 매우 섬세한 러플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19). 또한 뽀뽀한 소재로 러플을 잡아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면 다른 느낌의 장식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림 20>은 블라우스의 칼라 부분과 스커트 밑단에 러플을 촘촘하게 잡아서 꽃의 형태를 만들어 레트로의 이미지를 현대화하고 장식미를 부각하였다

플라운스는 주로 스커트의 옆선에서 아랫단으로 이어지며 이브닝드레스 등과 같이 화려한 디자인에 잘 어울린다(그림 21). <그림 22>에서도 스커트에 풍성하게 잡은 플라운스를 볼 수 있는데, <그림 21>과 달리 여러 겹이 중첩되어 더욱 장식적이며 화려하다.

비즈 등의 구슬 장식은 패션에서 독특한 표현력과 새로운 재료 및 재질감, 화려한 색채로 장식적 특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패션에서 장식에 의한 시각 효과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현되며 장식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른 효과는 장식기법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현대 패션에서는 표현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비즈 장식은 표면에 문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성적으로 또는 입체적으로 장식되기도 한다. 어떠한 형태이든 비즈가 부착됨으로써 시각적인 재질감을 더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독특한 표면효과를 유발

한다. 또한 빛의 반사로 인한 리듬감과 율동감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긴밀하게 연결된다.⁹⁴⁾ <그림 23>은 샤넬(Chanel)의 07 S/S 작품으로 미니드레스의 가슴부분에 여러 가지 색상의 크리스탈 종류가 달려 있다 비치는 소재에 비즈를 달아줌으로써 여성성을 강조하고 시선을 집중시킨다 또한 <그림 24>는 소매에 문양대로 비즈를 달아서 장식하였다. 기본 소재와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은은하게 표현하였으며 움직임 때마다 비즈의 광택을 느낄 수 있다.

자수는 실의 종류와 문양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는 전통공예기법으로 레트로로맨틱의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고 특히 자수로 꽃무늬를 표현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그림 25>는 06/07 F/W 아쿠아스쿠텀(Aquascutum)의 작품으로 작은 망토가 달린 코트에 화려한 로코코풍의 수를 놓아 여성스러움을 더하였다. 겨울용 외투는 두께감이 있어 섬세한 디테일을 사용하기 어려우나 자수는 어떠한 소재에든지 가능하며 아쿠아스쿠텀의 다소 클래식한 분위기에 자수로 변화를 주었다. <그림 26>도 크고 화려하게 그라데이션된 꽃들로 자수를 놓아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리본은 일반적으로 나비모양으로 만들어 의복 위에 달아주는 것으로 주로 실크나 벨벳, 새틴 등 부드러우면서도 광택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리본은 조형적 특성으로 인해 입체감이 있으며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는 주로 로코코시대 마담 폰파두르의 로브에서 사용되었던 리본의 형태가 사용된다. 샤넬이 07 S/S에 발표한 짧은 미니드레스는 중앙에 리본을 달아 단조로움을 피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그림 27). 도나 카란(Donna Karan)의 원피스에서도 소매 끝에 달린 리본이 주는 장식효과를 찾아 볼 수 있다(그림 28).

94) 이슬아, “패션에 나타난 비즈장식 디자인 연구: 2000년부터 2004까지”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4), pp.1-3.

끈장식은 자연스럽게 조여주거나 포인트를 주기 위하여 끈으로 묶는 것으로 속옷의 걸옷화 현상에 따라 코르셋의 옆면이나 뒷면에서 조여주는 역할을 하였던 타이트 레이싱(tight-lacing)⁹⁵⁾이 장식디테일로 사용된다(그림 29). <그림 30>은 다소 과감한 디자인으로 코르셋 형태의 앞면에 넓은 끈을 X자 형태로 묶어서 레트로로맨틱을 표현하였다

모피는 보온의 목적으로 내피나 외피에 쓰이며 요즈음은 다양한 인조모피도 많이 생산된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는 07/08 F/W에 모피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림 31>은 망토 가장자리를 모피로 장식하여 더욱 풍성하며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림 32> 역시 크리스찬 디오르의 작품이지만 모피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울과 모피를 섞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코트와 거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세련된 조화를 이룬다.

단추는 기능적인 면과 단조로운 디자인을 변형시키는 장식적인 효과를 동시에 준다. <그림 33>은 큰 사이즈의 제천으로 만들어진 단추를 두 줄로 단 것으로 레트로로맨틱의 이미지를 강하게 풍긴다 또한 작은 금속성의 단추를 많이 달아서 로코코시대의 남성 재킷을 연상시키는 작품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34).

<그림 35>는 태프타 소재로 셔링을 잡아 소매를 풍성하게 만든 퍼프슬리브로 화려하며 장식적이다. 반면에 부드러운 쉬폰으로 만든 퍼프슬리브는 섬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그림 36). 셔링은 소매 뿐만 아니라 스커트나 칼라 등에도 많이 사용된다.

95) 윤진아, “여자속옷의 걸옷화 현상과 패턴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p.9.

5) 장신구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본성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아름다운 장신구에 대한 동경과 그것을 몸에 지녀 치장하는 것은 인간 문화의 시작과 동시에 나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⁹⁶⁾ 물론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패션의 흐름에 따라 사용되는 장신구의 종류나 디자인은 매우 다양하다. 고대에는 주술적인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었으며 중세에는 장식적인 디자인이 많이 사용되었다. 근세에는 지나치게 장식적인 것 보다는 인간미가 가미되어 전체적으로 패션과 조화를 이루는 장신구를 선호하였다. 자연적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었던 근대에 이어 현대에는 패션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재료를 사용한 코디네이션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신구에는 액세서리, 가방, 장갑, 구두 등 의복 이외의 것으로 패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품목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지니고 다니는 특성때문에 가시적이고 유행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⁹⁷⁾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의 장신구에서는 로코코시대의 우아하며 여성적인 취향이 잘 드러나는데 꽃, 레이스, 리본 등이 과장된 형태로 표현된다.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은 새틴의 미니드레스에 어울리는 머리장식으로 커다란 장미꽃과 진주를 사용하였다(그림 37). 로코코시대 후기의 머리장식이 과열되어 높은 머리 위에 꽃, 깃털, 레이스로 만든 헤드드레스 등을 착용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현대인의 장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07 S/S 루이 뷔통(Louis Vuitton)도 'soft romance'를 시즌의 테마로 잡으면서 꽃을 장신구로 사용하였다(그림 38). 작은 들꽃들을 머리에 달아 주고, 가방에도 꽃을 넣

96) 임옥수, “복식에서의 장신구 역할 및 미적 기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2000), p.192.

97) 클레어 필립스(Clare Phillips), 「장신구의 역사: 고대에서 현대까지」, 김숙 역 (서울: 시공아트, 2003), p.186.

어 전체적으로 복잡한 현대사회와의 단절, 그리고 과거로의 회귀와 동시에 부드러운 로맨틱의 이미지를 풍긴다. 알렉산더 맥퀸의 구두 역시 화려한 꽃과 리본으로 레트로로맨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그림 39). 발목에 꽃을 달아줌으로써 시선을 집중시키며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그림 40>은 주름잡힌 소재를 사용하여 리본형태로 묶어준 이브닝백으로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의 드레스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그림 41>도 발렌티노의 작품으로 붉은 공단에 작은 진주를 섬세하게 달아 화려하게 장식한 이브닝백이다. 뿐만 아니라 장갑에서도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림 42>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작품으로 파스텔톤의 얇은 망사에 유기적인 곡선의 비즈 장식을 달아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그림 43>은 로코코시대에 목에 장식하였던 초크스타일의 목걸이로 섬세한 팬던트 장식과 벨벳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또한 왕관 형태의 헤어밴드와 커다란 보석으로 장식한 목걸이와 귀걸이(그림 44)는 과거에 대한 강한 향수와 함께 과장된 형태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림 1> New Romantics
(street style, p.95)



<그림 2> New Romantics
(street style, p.95)



<그림 3>
실루엣
Guy Laroche
(02/03 F/W, Collections, p.387)



<그림 4>
실루엣
Giles
(07 S/S, www.style.com)



<그림 5>
실루엣
Ji Haye
(02 S/S, Collections, p.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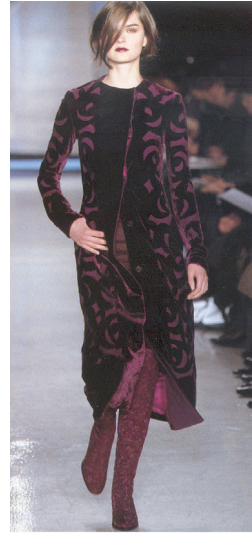
<그림 6>
실루엣
Kate and Laura Mulleavy
(07 S/S, WWD, p.37)



<그림 7>
실루엣
Rodarte
(07 S/S, www.style.com)



<그림 8>
소재
Antonio Berardi
(05/06 F/W, www.style.com)



<그림 9>
소재
Donna Karan
(02/03 F/W, www.style.com)



<그림 10>
소재
Alexander McQueen
(06/07 F/W, www.style.com)



<그림 11>
소재
Blugirl
(06/07 F/W, www.style.com)



<그림 12>
소재
Vivienne Westwood
(07 S/S, www.style.com)



<그림 13>
색채
Valentino
(07 S/S,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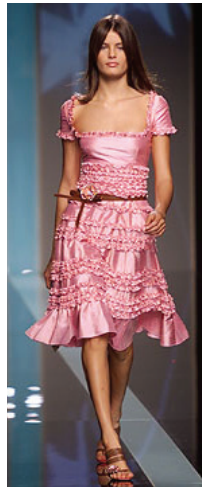
<그림 14>
색채
Bill Blass
(03 S/S, www.style.com)



<그림 15>
색채
Bluemarine
(01 S/S, www.style.com)



<그림 16>
색채
Gucci
(07 S/S, www.style.com)



<그림 17>
프릴
Valentino
(02 S/S, www.style.com)



<그림 18>
프릴
Valentino
(05/06 F/W, www.style.com)



<그림 19>
러플
Valentino
(05/06 F/W, www.style.com)



<그림 20>
러플
Emmanuel Ungaro
(06 S/S, www.style.com)



<그림 21>
플라운스
Emmanuel Ungaro
(06 S/S, www.style.com)



<그림 22>
플라운스
Valentino
(02 S/S, www.style.com)



<그림 23>
비즈
Chanel
(07 S/S,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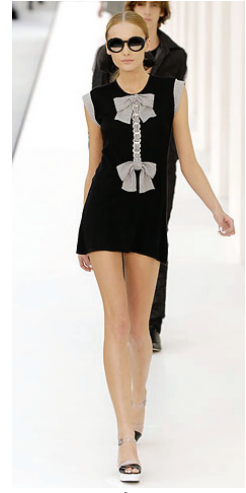
<그림 24>
비즈
Christian Dior
(07/08 F/W, www.style.com)



<그림 25>
자수
Aquascutum
(06/07 F/W, www.style.com)



<그림 26>
자수
Oscar de la Renta
(03 S/S, www.style.com)



<그림 27>
리본
Chanel
(07 S/S, www.style.com)



<그림 28>
리본
Donna Karan
(03 S/S, www.style.com)



<그림 29>
끈장식
Jil Sander
(05 S/S, www.style.com)



<그림 30>
끈장식
Versace
(03/04 F/W, www.style.com)



<그림 31>
모피장식
Christian Dior
(07/08 F/W, www.style.com)



<그림 32>
모피장식
Christian Dior
(07/08 F/W, www.style.com)



<그림 33>
단추
Aquascutum
(06/07 F/W, www.style.com)



<그림 34>
단추
Dolce & Gabbana
(06/07 F/W, www.style.com)



<그림 35>
퍼프슬리브
Luisa Beccaria
(07 S/S, www.style.com)



<그림 36>
퍼프슬리브
Malandrino
(07 S/S, www.style.com)



<그림 37>
장신구
Sonia Rykiel
(07 S/S, www.style.com)



<그림 38>
장신구
Louis Vuitton
(07 S/S, www.style.com)



<그림 39>
장신구
Alexander McQueen
07 S/S
(Vogue collections issue 3. p.264)



<그림 40>
장신구
Valentino
07 S/S
(Vogue collections issue 3. p.273)



<그림 41>
장신구
Valentino
07 S/S
(Vogue collections issue 3. p.272)



<그림 42>
장신구
John Galliano
07 S/S
(Vogue collections issue 3. p.301)



<그림 43>
장신구
Valentino
(05/06 F/W, www.style.com)



<그림 44>
장신구
Peter Jensen
(06/07 F/W www.style.com)

3.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

앞에서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실루엣 소재, 색채, 디테일, 장신구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적인 고찰 뿐 만이 아니라 내적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패션 자료들을 근거로 특성을 분류한 결과 각 요소들이 강조되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루엣이 부각되어 과장된 조형성을 나타냈으며 색채와 디테일이 강조되어 화려한 장식적인 특성을 띠었다. 또한 소재를 위주로 여러 요소들이 혼용되어 다원적 복고성을 표현하고 있다

1) 과장된 조형성

실루엣은 패션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신체에 공간을 형성하고 입혀져서 이루게 되는 형태가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게 된다. 또한 내부적인 힘이 가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조형예술로서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복식에서 형태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복식의 조형은 이미 고대 그리이스 시대부터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다.⁹⁸⁾ 그러나 복식은 회화나 조각 등 순수미술과는 달리 옷을 입는다는 물리적, 생활적 기능의 충족을 기본적 과제로 삼고 그 위에 심리적 내지는 미적인 것을 추구한다.⁹⁹⁾ 그러므로 각기 다른 디테일을 사용하여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패션트렌드에 따라서 과장, 확대, 축소, 변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실루엣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시대마다 심미적인 취향이나 미적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당시의 트렌드에 따라 패션조형의 특성이 달라진다

98) 에리카 티엘(Erika Thiel), 「복식과 예술: 예술가와 모드」, 양숙희 역 (서울: 교학연구사, 1997), p.11.

99)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 장학사, 1980), p.64.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현재의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 과거의 화려하며 장식적인 스타일을 표방하는 것으로 과장된 조형성을 지닌다. 확대, 과장된 복식은 공간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커지며 어느 한부분이 강조되어 시선을 끌게 된다.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은 함축적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탄성적 공간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의 복식을 창조하게 된다 즉, 우리의 시각적 인지에 있어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형이나 인체를 내부로 축소시킨 오목한 것 보다, 공간적으로 볼록한 것이 공간과 입체의 확장을 더욱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¹⁰⁰⁾ 확대·과장형 복식은 주로 허리, 어깨, 목의 세 부분에 편중되어 이 부분에 대한 과장과 확대로 '더욱 조이고', '더욱 넓히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확대와 과장은 좀 더 조형적이어서 구상적인 구조와 추상적인 구조로 그 경향이 구별된다.¹⁰¹⁾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전의 신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어 복식에서도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하게 되었고 점차 이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형태가 유행하게 되었다. 복식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윤곽을 무시하고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변해 갔으며 인공적인 양식과 기교를 통한 세련됨과 우아함이 추구되었다.¹⁰²⁾ 이렇게 과장된 형태는 원형의 러프나 부채형의 큰 칼라, 폭이 넓은 스커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로크 시대에는 가발과 루프 장식이 과장되게 사용되었고 로코코 시대에도 리본 장식과 함께 넓은 폭의 스커트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위와 같은 과거의 형태들을 근거로 한 조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복식미는 일정한 형태의 가시적인

100) 김정숙, “공간조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p.11.

101) 정옥임, 「인체와 피복」 (서울: 수학사, 1985), p.159.

102) 박셋별, 앞의 글, p.45.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었으나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는 기본 구성선에서 부풀려진 풍성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약간의 비대칭, 불균형의 현상이 나타나며 풍자적인 개념이 강해진다. 풍자는 전통에 대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접근¹⁰³⁾으로 특정한 형식을 과장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나타나는 일종의 유희적 개념이다. 패션에서의 풍자는 모방, 왜곡, 강조, 과장, 확대 등의 기법으로 표현되며 디자이너의 의도를 새롭게 한다.

19세기 후반 모리스(Morris)의 예술공예운동 이후 복식은 하나의 미적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부의 확산 등으로 인해 복식의 실용가치가 충족됨에 따라 미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다.¹⁰⁴⁾ 그러면서 주관적인 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고 현대 패션의 다양한 형태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주관적인 미란 미에 대한 조건을 주관의 태도 즉, 인간의 정신적인 방향에 두는 것을 말한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고 대상을 객체로 하여 미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감정이 유입되는 내적 활동을 하게 된다. 미란 주어진 형식에 의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끌리는 한없이 새로운 내용을 산출하는 끝이 없는 형성의 과정이기도 하다.¹⁰⁵⁾

07 S/S 랠프 루치(Ralph Rucci)의 작품에서 셔링 장식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부풀린 소매와 스커트의 조형적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45). 이것은 현대인의 부재와 허구를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주관적인 미의 근거를 갖도록 한다 <그림 46>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으로 자주색의 태프타를 사용하여 실루엣을 과장함으

103) 린다 허치언(Linda Hutcheon), 「패러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 p.190.

104) 최수현, “복식의 미적 범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p.1.

105) 조규화, 앞의 책, p.17.

로써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혼합을 통하여 형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림 47>에서도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러프칼라의 이미지가 뿔뿔한 망사 주름의 과장된 표현을 통하여 강조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레트로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과장미를 통하여 내재된 미적 가치를 표현하였다. <그림 48>은 로코코시대의 높은 머리 장식을 연상시키는 알렉산더 맥퀸의 모자로 역시 불균형, 부조화의 과장된 조형 형태이다. 커다란 모자를 현대인의 갈등과 모순 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함축한 은유적인 표현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리본을 사용하여 과장된 조형미를 표현한 작품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49). 비례와 균형이 맞지 않는 커다란 리본을 달아서 레트로로맨틱의 이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2) 화려한 장식성

미학적으로 볼 때 장식은 일종의 형식 충동을 계기로 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장식이 갖는 미적 효과는 발생론적으로 원시사회의 여러 예술 현상 속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장식의 발생이 원시사회로 거슬러 올라가 보편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보아도 장식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예술 분야의 공통된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⁶⁾ 이러한 본질적인 욕구에 의해서 표면화되는 장식성은 미적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더욱 더 화려한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창조적 표현 영역으로서 보다 새로운 디자인을 위하여 장식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심미적으로 서로 어울리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화려한 장식들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여성 특유의 장식적 욕구를 만족시킨

106) 박삿별, 앞의 글, p.8.

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인위적이며 비감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더욱 더 강한 미적, 정신적 욕구를 분출하게 된다.

패션은 사회·문화 흐름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며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도구이다.¹⁰⁷⁾ 그러므로 패션은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현대인의 내적 표현도구로 모든 유행의 기본이 된다. 원시시대부터 시작된 장식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를 거치며 더욱 더 화려해졌으며 오늘날 현대패션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자수, 보석, 레이스, 슬래쉬, 소매 끝에 달린 러플, 단추 등이 의복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장식은 리본, 루프, 태슬 등 이었다. 로코코 시대에는 장식 예술 분야에서 세련된 예술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복식에 있어서도 예술을 중요시하는 풍조에 영향을 미쳤고 복식이 개인의 문화척도로 작용하여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경향을 띠게 되었다.¹⁰⁸⁾ 이 시대에는 모피, 리본, 비즈, 끈, 단추 등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특징 중의 하나는 위와 같은 장식들이 현대 패션과 잘 어울리는 모양, 크기, 색상으로 재창조되어 사용되는 화려한 장식성이다. <그림 50>은 로코코시대 여성 로브의 스토타커 위에 달려있던 리본 장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소매에 여러 개를 달아 과거의 사치스러움을 재현하였다. 또한 06 S/S의 크리스찬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가 오뜨 꾸뛰르에서 발표한 드레스도 여러 가지 디테일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자수와 비즈로 문양을 만든 벨벳 소재의 소매는 과거의 부귀 영화를 상징하며 드레스 가운데의 비즈달린 좁고 긴 형태는 로코코시대의 스토타커를 연상시킨다. 폭이 넓은 스커트와 머리장식, 레이스 소재로 된 소매깃 등에서

107) Françoise Vincent-Ricard, *Raison and Passion* (Paris: Berger-Levrault, 1993), p.213.

108) 박셋별, 앞의 글, p.53.

화려한 장식미를 엿볼 수 있다(그림 51). <그림 52>는 강한 원색 깃털로 장식한 드레스로 깃털이 갖는 의미를 음미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현대인의 장식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로다르트(Rodarte)는 꽃을 연상시키는 장식물을 드레스 전체에 달아 레트로로맨틱 스타일을 표현하였다(그림 53). 장식성이 강하게 부각된 드레스로 형식보다 정신에 우위성을 부여한 것으로 개성과 다양한 자유로움을 표현하였다. 레트로로맨틱은 이성이나 지성보다 직관과 감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화려한 장식을 통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림 54>는 메탈 소재와 비즈를 사용한 이브닝드레스로 실용성과 기능위주의 현대사회에서 플라운스의 환상적인 장식기법을 사용하여 현대인의 미의식을 표현하였다.

3) 다원적 복고성

현대에는 합리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개방성,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종합하는 시기이다. 패션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패션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여 공존하게 되었다.¹⁰⁹⁾

패션은 근본적으로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식이며 시각적 은유를 통하여 문화를 재구성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¹¹⁰⁾ 또한 패션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교차, 중첩되어 사용됨으로써 의미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성(gender)이나 T(time), P(place), O(occasion) 등으로 이들이 각각 조합되어 새로운 미적 가치를 형

109) 배정민, 김영삼, 앞의 글, pp.657-658.

110) 앤드류 투커, 탐신 킹스웰, 「패션의 유혹」, 김은옥 역 (서울: 예담, 2003), pp.8-9.

성하게 된다.

특히 레트로로맨틱의 복고적 성향은 시간성의 개념이 강하게 부각된다오 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은 크게 순환적 시간관 과 직선적 시간관, 객관적 시간관과 주관적 시간관으로 구분되며 그 개념 또 한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 역사관과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다.¹¹¹⁾ 시간성 이 반영된 현대 패션에서의 복고적 요소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내용의 재현 이 아닌 이미지의 차용으로 표현된다. 즉, 과거를 풍미하였던 대표적 스타일, 실루엣, 특정 아이템이 현대적 재질, 새로운 기술, 현대적 디자인과의 결합으 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통적인 직물과 패턴, 과거의 제작 기술 등이 도입되기 도 하며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장식,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이 함께 출현 하기도 한다.¹¹²⁾ 이러한 다원적 복고주의는 체계적인 사고와 구별되는 대립 적인 유형의 사고 형태이면서 모든 개념과 규범의 상대성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응용하여 의복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는 지나간 세계에 대한 회고와 향수로 과거의 의상을 재현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영감에 따라 역사적 아이템을 새 로운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¹¹³⁾ 레트로로맨틱은 역사 속의 복고적인 모든 요소들이 임의적으로 절충과 융합을 이루어 나타난 형 태로서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충분하다.¹¹⁴⁾ <그림 55>는 로코코시대 의 양옆이 직각으로 퍼진 형태의 로브인 만투아(mantua)에서 발상된 크리스

111) 주미영, 김영인, “패션에 있어서 시간성이 반영된 룩에 관한 고찰,” 「복식」, 56(6) (2006), p.2.

112) 나현신, 전해정,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 비비안 웨스트우드 와 크리스찬 라크로아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4) (2000), p.466.

113) 박윤정, 양숙희, 앞의 글, p.100.

114) 김현진, 간호섭, “현대 Retro 패션에 나타난 Mix & Match Style에 관한 연구: '03 s/s ~ '04 f/w까지의 최근 레트로 경향 중심으로,” 「디자인포럼21」, 21(7) (2004), p.85.

찬 디오르의 드레스로 실루엣, 소재, 디테일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잘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실루엣은 특정 부분을 부풀림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인체 곡선을 강조하며 과거를 재현하는 분위기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표현한다. 07 S/S에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는 과거의 직물 문양과 리본, 자수 장식 그리고 로코코 시대의 헤어스타일을 성과 시간 공간을 초월한 은유적 암시를 통하여 표현하였다(그림 56). 이와 같이 여러 요소들이 절충된 현대 패션의 다원적인 특성은 다양한 혼합과 부조화속의 조화를 통하여 나타나며 독특한 효과를 연출한다.

<그림 57>은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으로 과거의 스타일이 절충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선행양식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선택, 취합, 절충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림 58>은 바로크 시대의 러프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그 시대의 분위기와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과거의 의상을 단순화시켜 현대화한 것으로 디자이너의 표현의지가 돋보인다. <그림 59>는 알렉산더 맥퀸의 07 S/S 작품으로 복고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보편타당한 개념을 거부하고 디자이너의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였다. 곡선의 부드러운 느낌을 준 소재와 힙에 넣은 패드, 자유로운 헤어스타일 등이 절충되어 복고의 의미를 다원화 시킨다.



<그림 45>
과장된 조형성
Ralph Rucci
(07 S/S, www.style.com)



<그림 46>
과장된 조형성
Vivienne Westwood
(06/07 F/W, www.style.com)



<그림 47>
과장된 조형성
Jean Paul Gaultier
(02 S/S, www.style.com)



<그림 48>
과장된 조형성
Alexander McQueen
(07 S/S, www.style.com)



<그림 49>
과장된 조형성
Victor & Rolf
(02 S/S, www.style.com)



<그림 50>
화려한 장식성
Victor & Rolf
(02 S/S, www.style.com)



<그림 51>
화려한 장식성
Christian Lacroix
(07 S/S, www.style.com)



<그림 52>
화려한 장식성
Tocuno ler Vol.
(00 S/S, www.style.com)



<그림 53>
화려한 장식성
Rodarte
(07 S/S, www.style.com)



<그림 54>
화려한 장식성
Valentino
(05/06 F/W, www.style.com)



<그림 55>
다원적 복고성
Christian Dior
(01 S/S, Haute Couture, p.32)



<그림 56>
다원적 복고성
Junya Watanabe
(07 S/S, www.style.com)



<그림 57>
다원적 복고성
Alexander McQueen
(06/07 F/W, www.style.com)



<그림 58>
다원적 복고성
Victor & Rolf
(02 S/S, Haute Couture, p.32)



<그림 59>
다원적 복고성
Alexander McQueen
(07 S/S, www.style.com)

III.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시각적 평가

1. 의복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앞에서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의복의 장식디테일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실시하여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시각적 이미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의복에 대한 시각적 평가는 지각자가 주체가 되어 객관적인 매체인 의복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것으로 의복의 장식디테일 뿐 만 아니라 소재, 실루엣 등의 요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 중 장식디테일, 소재, 실루엣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식디테일에 관한 연구로, 이경희¹¹⁵⁾는 의복실루엣은 의복디자인보다 강한 이미지를 지니고, 의복디자인은 디테일에 의해 시각적 효과가 완화되어 나타나 디테일이 의복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현정, 이은영¹¹⁶⁾의 연구에서는 의복에 대한 미적 가치 평가시 영향력있는 조형요소의 순위가 색채, 선·스타일, 무늬, 세부장식 순으로 나타나 이경희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경희¹¹⁷⁾는 의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대해 연구한 결과 표면의 이미지는 디테일의 방향보다 의복형태와 디테일의 종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115) 이경희,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1)

116) 오현정, 이은영, “의복에서의 조형미와 유행평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1990), pp.234-251.

117) 이경희, “의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타났다. 같은 프릴 디테일도 A-line과 X-line에 사용된 경우는 매우 귀여운 이미지로 부각되었고, V-line에서는 현시적이며 성숙한 이미지로, V-line에 바이어스 테이프를 사용한 이미지는 현대적으로 나타났다. 오선아¹¹⁸⁾의 연구에서는 의복범주, 장식의 음양수준, 장식 양의 수준과 지각자 변인이 임신부의 인상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사선 줄무늬의 넥타이, 견장, 직선의 커프스 소매와 셔츠 칼라 등 남성적 이미지의 장식인 경우 진보적으로 지각되었고 물방울 무늬의 스카프, 프릴 소매와 둥근 칼라 등의 여성적인 이미지의 장식인 경우에는 사교적으로 지각되었다. 또 한정숙, 류숙희¹¹⁹⁾는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싱글과 더블 재킷 모두 단추 수가 하나일 때 우아한, 품위있는, 노숙한, 포말한, 단정한, 깔끔한, 자연스러운, 시원한, 날씬해 보이는 등의 이미지가 나타났으며 단추 수가 많아질수록 단정하지 않은, 특이한, 뚱뚱해 보이는, 복잡한 등의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미연, 이명희¹²⁰⁾는 장식 유무와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을 연구한 결과 허리에 리본 장식이 있는 경우를 가장 귀엽게 지각하였고 허리에 장식이 없는 경우를 가장 귀엽지 않게 지각하였다.

소재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김미지¹²¹⁾는 소재의 색채와 감성에 관한 연

118) 오선아, “임부복의 의복범주 및 장식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6)

119) 한정숙, 류숙희, “테일러드 재킷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칼라길이, 단추 수, Single/Double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8) (1997), pp.1376-1386.

120) 이미연, 이명희,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2보): 소재, 소매와 장식유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8) (2002), pp.1216-1227.

121) 김미지, “Texture와 Colour Coordination의 감성공학적 Technology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6)

구에서 실제 소재 20개를 사용하여 자극물로 제시하고 소재의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에 의한 이미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 질감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각적 질감을 결정짓는 요소가 더 다양하며 미세한데 있다고 분석하였다. 추선행, 김영인¹²²⁾은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변인은 광택, 두께, 밀도로 각각 광택이 있으며 얇고 성근 소재는 우아하고 가벼운 이미지이며 광택이 없고 촘촘한 소재는 편안한 이미지를 준다고 하였다. 또한 불규칙, 규칙 요철의 소재는 개성적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변인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광택이 있으며 성근 소재도 개성적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문양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박금옥¹²³⁾은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에서 직물무늬 이미지는 품위성, 경직성, 경량성, 단정성, 복합성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무늬간에는 품위성과 경직성에서 매우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는데 꽃무늬가 가장 품위있는 것으로 무늬없는 것이 가장 경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 형, 형태의 조형요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의복의 외곽선을 형성하는 실루엣을 중심으로 다른 요소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거나, 패턴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¹²⁴⁾ 이주현¹²⁵⁾은 수트, 드레스, 블라우스와 바지의 의복유형이 착용자에 대한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서임을 밝혔다. 또한 하의에서 하의의 길이가 길 때보다 짧을 때 더 능력 있고 활동적이며 더 어려보이고 깔끔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윤희, 강경

122) 추선행, 김영인, “패션소재의 색채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2) (2002), pp.193-204.

123) 박금옥,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6)

124) 김유진, 이경희,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2000), p.977.

125)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0)

자¹²⁶⁾의 연구에서 소매, 스커트 폭, 스커트 길이는 원피스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스커트 폭은 성숙성, 주의집중성 차원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단서이며 스커트 길이는 부드러움, 품위, 현대성 인상 차원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이미연, 이명희¹²⁷⁾의 연구를 보면, 실루엣은 매력성, 여성성, 귀엽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 단정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실루엣에 따른 차이를 보면, 둥형 실루엣과 벨형 실루엣 착용자가 매력적이고 여성적이면서도 귀엽게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의복의 장식디테일, 소재, 실루엣에 따라 시각적 평가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조형요소의 기능적이며 구조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구체적인 의복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의복디테일의 종류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장식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트렌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측정도구

연구방법은 질문지와 자극물을 사용한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10×2×2(의복디테일×지각자의 성별×연령)의 요인설계와

126) 이윤희, 강경자, “원피스드레스의 소매와 스커트 폭, 길이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6) (1997), pp.1060-1071.

127) 이미연, 이명희,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1보): 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5) (2000), pp.724-735.

10×2(의복디테일×지각자의 전공)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의복 디테일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평가를 측정하는 형용사쌍의 질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을 택하기 위하여 00 S/S부터 07 F/W 까지의 여성복 컬렉션(Collections), WWD, 패션쇼(Fashion Show), 보그(Vogue) 등의 잡지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www.style.com)를 참고하여 총 10개의 의복디테일을 선정하였다. 의복디테일은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프릴, 리본, 퍼프슬리브, 단추, 끈장식, 모피장식, 플라운스, 비즈, 러플, 자수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정도로 하였으며 노출이 심한 것은 디자인을 변경하였고 인상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얼굴을 통일하였다. 또한 의복 이미지 측정시 의복 색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림을 무채색으로 하였으며 배경색은 연한 회색이었다. 자극물의 크기는 6.5×12.5cm였으며 완성된 자극물은 d1-d10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자극물은 <그림 60>과 같으며 의복디테일 1은 프릴, 2는 리본, 3은 퍼프슬리브, 4는 단추, 5는 끈장식, 6은 모피장식, 7은 플라운스, 8은 비즈, 9는 러플, 10은 자수장식이었다.

시각적 평가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관련 선행 연구¹²⁸⁾¹²⁹⁾¹³⁰⁾¹³¹⁾¹³²⁾ 등에

128) 이주현, 조궁호,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1995), pp.747-764.

129) 김일분, 유태순, “의복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복식」, 45(7) (1999), pp.103-119.

130) 김유진, 이경희, 앞의 글, pp.976-986.

131) 이미연, 이명희, 앞의 글, pp.1216-1227.

132) 김윤경, 강경자,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2003), pp.395-406.

서 사용한 형용사쌍 중에서 의복디테일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20개의 형용사쌍을 택하였다. 의복디테일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 하는 - 내가 싫어 하는'의 1문항을 7점 척도로 사용하여 각 의복디테일의 좋아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자극물의 의복디테일을 측정하는 의미분척도는 형용사쌍의 중간 4점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에 긍정적 형용사를 두어 7점으로, 오른쪽에 부정적 형용사를 두어 1점을 부여하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피험자의 성별, 연령, 전공여부를 조사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자가 166명, 여자가 280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였다. 질문지는 각각 5개의 의복디테일을 1조로 조합하여 총 2조가 되게 하였으며 1명의 피험자가 5개의 자극물 1조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d1 프릴
(참조: Valentino
02 S/S
www.style.com)



d2 리본
(참조: Chanel
07 S/S
www.style.com)



d3 퍼프슬리브
(참조: Malandrino
07 S/S
www.style.com)



d4 단추
(참조: Aquascutum
06/07 F/W
www.style.com)



d5 끈장식
(참조: Jil Sander
05 S/S
www.style.com)



d6 모피장식
(참조: Christian
Dior 07/08 F/W
www.style.com)



d7 플라운스
(참조: Emmanuel
Ungro 06 S/S
www.style.com)



d8 비즈
(참조: Chanel
07 S/S
www.style.com)



d9 리플
(참조: Valentino
05/06 F/W
www.style.com)



d10 자수
(참조: Aquascutum
06/07 F/W
www.style.com)

<그림 60> 자극물

3. 연구결과 및 논의

1) 의복디테일 평가의 요인분석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의복디테일을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5개 요인을 채택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세련된 - 촌스러운, 매력있는 - 매력 없는 등이 포함되어 매력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장식적인 - 단순한, 과장된 - 과장되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장식성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3은 발랄한 - 발랄하지 않은, 귀여운 - 귀엽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귀염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 4는 복고적인 - 복고적이지 않은, 고상한 - 천박한 등이 포함되어 복고성 요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5는 여성적인 - 남성적인, 낭만적인 - 낭만적이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여성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7 이상이고 요인 5까지의 누적변량은 63.83%이었다. 요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Cronbach's α 값을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신뢰도는 .85, .79, .53, .76, .55로 나타났다.

2)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각적 평가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대한 시각적 평가가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의복디테일 평가의 요인분석

요인 1. 매력성	요인부하량	요인 3. 귀엽성	요인부하량
세련된 - 촌스러운	.80	발랄한 - 발랄하지 않은	.80
매력있는 - 매력없는	.78	귀여운 - 귀엽지 않은	.77
아름다운 - 아름답지 못한	.66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66
섹시한 - 섹시하지 않은	.65	변량 = 11.33% 누적변량 = 46.57%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63	고유치 = 2.27 α 신뢰도 = .53	
품위있는 - 품위없는	.59	요인 4. 복고성	요인부하량
자연스러운 - 어색한	.57	복고적인 - 복고적이지 않은	.72
변량 = 19.71% 누적변량 = 19.71%		고상한 - 천박한	.65
고유치 = 3.94 α 신뢰도 = .85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59
요인 2. 장식성	요인부하량	변량 = 14.22% 누적변량 = 62.67%	
장식적인 - 단순한	.74	고유치 = 3.13 α 신뢰도 = .76	
과장된 - 과장되지 않은	.74	요인 5. 여성성	요인부하량
돋보이는 - 돋보이지 않는	.72	여성적인 - 남성적인	.79
화려한 - 수수한	.72	낭만적인 - 낭만적이지 않은	.59
개성적인 - 평범한	.64	변량 = 8.02% 누적변량 = 63.83%	
변량 = 15.53% 누적변량 = 35.24%		고유치 = 1.60 α 신뢰도 = .55	
고유치 = 3.11 α 신뢰도 = .79			

<표 2>에서 주효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장식성, 귀엽성, 복고성, 여성성 요인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를 볼 때 여자는 남자보다 의복디테일의 장식성, 귀엽성, 복고성, 여성성을 모두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자극물에 대하여 섬세하게 반응하여 의복디테일이 더 장식적이고 귀여우면서 복고성과 여성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2> 의복디테일과 시각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

변량원		매력성 <i>F</i>	장식성 <i>F</i>	귀염성 <i>F</i>	복고성 <i>F</i>	여성성 <i>F</i>
주효과	디테일(A)	7.32***	45.95***	20.46***	42.94***	4.42***
	성별(B)	1.02	8.63**	11.16**	4.00*	20.46***
	연령(C)	4.44*	.16	2.09	.01	.05
2원 상호 작용효과	A×B	4.49***	1.54	.83	1.38	1.94*
	A×C	.49	.54	.10	.67	1.11
	B×C	.74	.21	5.59*	1.41	1.17
3원 상호 작용효과	A×B×C	1.09	.99	1.22	.83	.96
변인	속성	<i>M</i>	<i>M</i>	<i>M</i>	<i>M</i>	<i>M</i>
디테일	프릴	4.19	4.92	3.92	3.90	5.19
	리본	3.78	4.13	4.04	4.64	4.73
	퍼프	3.98	4.77	3.72	4.15	5.00
	단추	4.25	3.58	3.83	5.21	4.62
	끈장식	4.16	5.13	4.04	3.76	4.82
	모피장식	4.06	5.14	2.66	3.81	4.63
	플라운스	4.55	4.86	3.70	4.00	5.13
	비즈	4.19	4.87	3.59	4.10	4.81
	리플	4.38	5.58	4.01	3.88	5.11
	자수	3.85	5.12	2.81	4.96	4.73
성별	남자	4.06	4.68	3.51	4.19	4.70
	여자	4.19	4.89	3.70	4.27	4.98
연령	21세 미만	4.22	4.82	3.75	4.28	4.95
	21세 이상	4.06	4.80	3.51	4.20	4.81

* $p < .05$ ** $p < .01$ *** $p < .001$

매력성 요인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1세 미만은 21세 이상보다 자극물의 매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였다. 즉 매력성의 경우 성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력성 이외의 장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은 성별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고 연

령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하게 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웨딩드레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다양한 실루엣 및 네 크라인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지각대상자를 더 매력적으로 판단한 이미연, 이명희¹³³⁾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의복디테일의 특성이 강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매력성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3>에 따르면 디테일에 따른 지각은 매력성, 장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의 모든 평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테일에 따라서 지각하는 정도가 매우 다르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의복디테일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10개 자극물의 평균치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매력성 요인은 6개 집단으로 각각 분류되었는데 매력성에 있어서 플라운스와 러플은 a집단에 속하여 가장 매력적으로 나타난 반면 퍼프, 자수, 리본은 f집단에 속하여 덜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플은 부드러운 소재로 주름잡아 수평선이 눈에 띄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유진, 이경희¹³⁴⁾의 연구에서 디자인의 선의 특성이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었다. 장식성 요인은 5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러플은 장식성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디테일이었다. 반면에 단추는 장식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단추는 장식보다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귀염성 요인은 4개

133) 이미연, 이명희, 앞의 글, pp.724-735.

134) 김유진, 이경희, 앞의 글, pp.976-986.

<표 3> 자극물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

매력성	자극물	d2	d10	d3	d6	d5	d8	d1	d4	d9	d7
		3.78	3.85	3.98	4.06	4.16	4.19	4.19	4.25	4.38	4.55
F=9.74***		----->f ----->e ----->d ----->c ----->b ----->a									
장식성	자극물	d4	d2	d3	d7	d8	d1	d10	d5	d6	d9
		3.58	4.13	4.77	4.86	4.86	4.92	5.12	5.13	5.14	5.58
F=64.95***		--->e --->d ----->c ----->b --->a									
귀염성	자극물	d6	d10	d8	d7	d3	d4	d1	d9	d5	d2
		2.66	2.81	3.59	3.69	3.72	3.83	3.92	4.01	4.04	4.04
F=38.40***		----->d ----->c ----->b ----->a									
복고성	자극물	d5	d6	d9	d1	d7	d8	d3	d2	d10	d4
		3.76	3.81	3.88	3.90	3.99	4.10	4.15	4.64	4.96	5.21
F=57.38***		----->f ----->e ----->d --->c --->b --->a									
여성성	자극물	d4	d6	d10	d2	d8	d5	d3	d9	d7	d1
		4.62	4.63	4.73	4.73	4.81	4.82	4.99	5.11	5.13	5.19
F=8.01***		----->c ----->b ----->a									

*** $p < .001$ a-f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1: 프릴 d2: 리본 d3: 퍼프 d4: 단추 d5: 끈장식

d6: 모피장식 d7: 플라운스 d8: 비즈 d9: 리플 d10: 자수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모피장식과 자수는 귀염성이 낮게 지각된 반면 리본은 귀염성이 높았다. 귀염성은 리본 이외에도 끈장식, 러플 등의 디테일과 관련성이 높았다. 복고성 요인은 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단추 디테일이 가장 복고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극물의 단추가 크고 두줄로 달려 있어서 단정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성은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프릴과 플라운스, 러플 등이 여성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들은 옷감의 주름으로 표현되는 비슷한 형태의 디테일로 셔링의 효과 때문에 낭만적이면서도 여성적인 취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고 본다. 비즈의 경우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장식성과 여성성이 각각 4.86, 4.81의 수치를 나타내어 다소 장식적이며 여성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프릴과 플라운스, 퍼프는 여성성이 강한 디테일로 지각되었으며 특히 플라운스는 가장 매력적인 디테일이었다. 러플은 여성성과 장식성이 강한 디테일로, 모피장식과 자수는 장식성이 강한 반면 귀염성은 떨어지는 디테일로, 단추는 복고성이 강한 디테일로 지각되었다. 또한 리본과 끈장식은 귀염성이 강한 디테일로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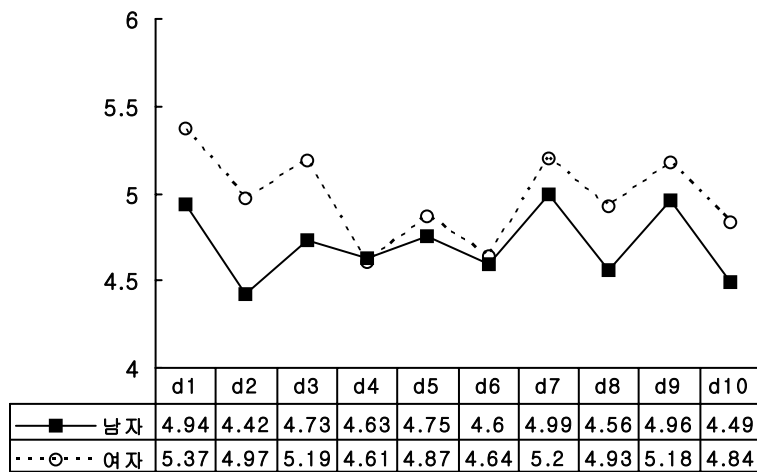
<표 3>에서 볼 때 매력성과 여성성은 디테일 및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이었고 귀염성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이었다. 또한 장식성과 복고성은 2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테일, 성별, 연령에 따른 3원 상호작용효과는 각 요인에서 모두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테일 및 성별에 따른 여성성과 매력성의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61>, <그림 62>와 같다. <그림 61>을 보면 디테일의 여성성에 대하여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대체로 더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특히 프릴, 리본, 퍼프슬리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프릴, 리본, 퍼프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옷에만 사용되어온 디테일이므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정확하게 지각한 결과라고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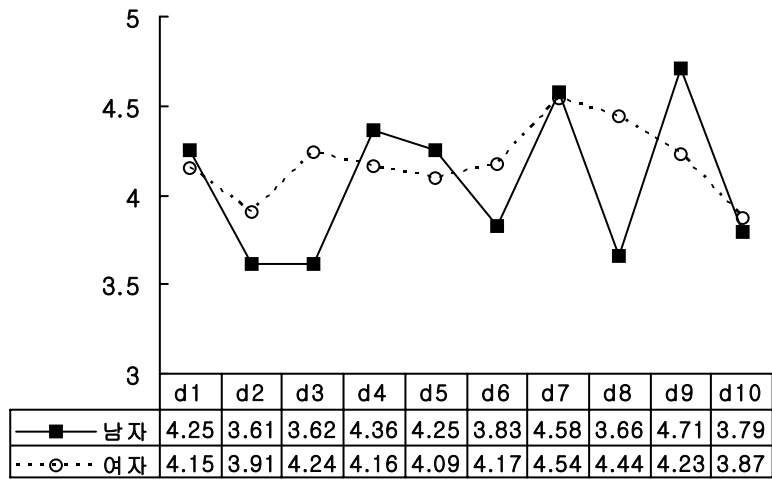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62>에서 성별 및 의복에 따른 매력성의 상호작용형태를 볼 때 여자들은 리본, 퍼프슬리브, 모피장식, 비즈를 남자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들이 실제 그와 같은 의복의 착용경험이 있고 또 그 의복디테일에 대한 착용욕구가 있으므로 매력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러플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월등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부드러운 소재로 주름잡은 것이 눈에 띄면서 섹시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63>에서 귀염성에 대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형태를 볼 때 21세 이상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던 반면 21세 이하에서는 남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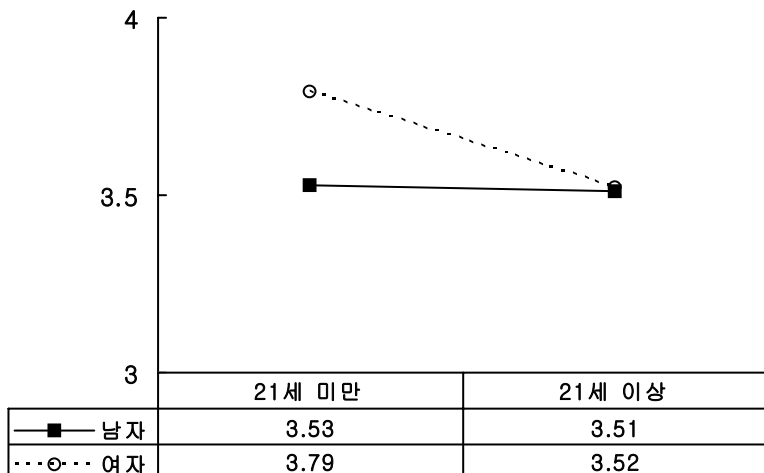
d1: 프릴 d2: 리본 d3: 퍼프 d4: 단추 d5: 끈장식
d6: 모피장식 d7: 플라운스 d8: 비즈 d9: 러플 d10: 자수

<그림 61> 여성성 평가에 대한 성별 및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d1: 프릴 d2: 리본 d3: 퍼프 d4: 단추 d5: 끈장식
d6: 모피장식 d7: 플라운스 d8: 비즈 d9: 러플 d10: 자수

<그림 62> 매력성 평가에 대한 성별 및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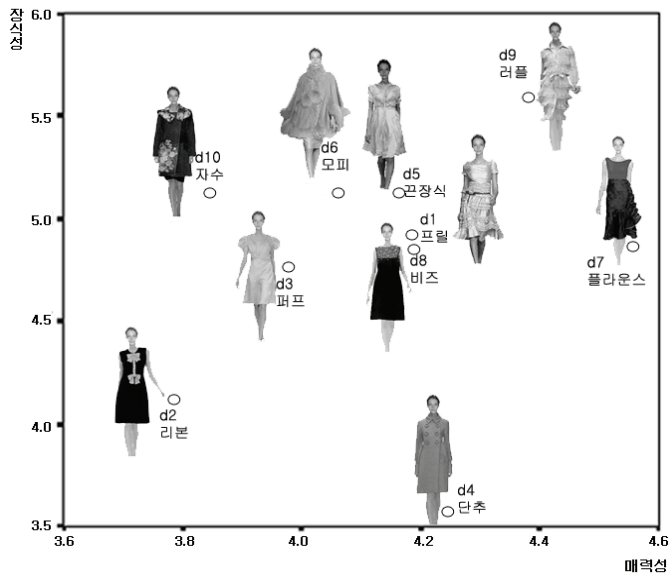


<그림 63> 귀염성 평가에 대한 성별,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자들은 연령이 변화하여도 의복에 대한 지각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지만 여자들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의복디테일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자극물의 귀염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자극물의 2차원상의 위치

5개 요인 중 요인적재량이 높은 처음 2가지 요인인 매력성과 장식성을 택하여 2차원의 인식도를 작성하였다. 인식도 상에서 각 의복디테일의 위치는 <표 4>에서 제시된 평균치에 의해 결정되며 X축을 매력성 요인, Y축을 장식성 요인으로 하여 <그림 6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플라운스와 러플은 매력성과 장식성이 비교적 높은 디테일이었다. 자수는 다른 디테일에 비하여 매력성은 낮으나 장식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단추는 장식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리본은 매력성과 장식성이 모두 낮았는데, 이것은 리본이 어린이 의복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성인 의복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64> 매력성과 장식성을 기준으로 한 의복디테일의 위치

4)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전공에 따른 시각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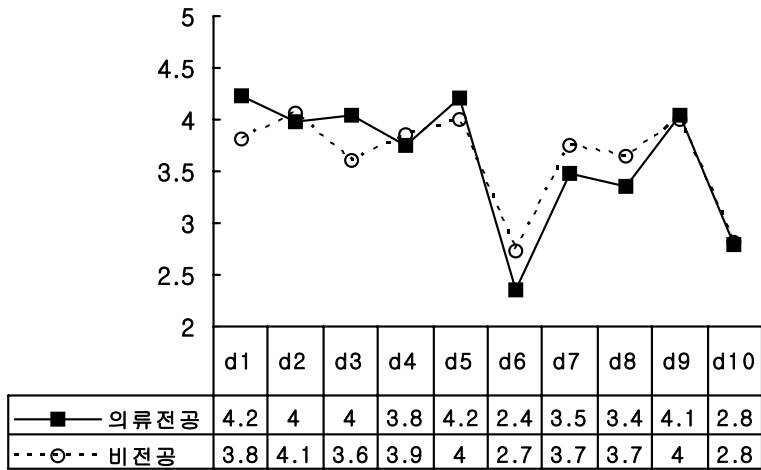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전공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의 주효과에서 전공에 따른 차이를 보면 매력성과 여성성은 전공에 따른 지각의 차이가 있었으나 장식성과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매력성과 여성성 모두 의류전공자들이 비전공자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류전공자들은 아름다우며 세련된 의상의 미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복디테일을 더 매력적이며 여성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매력성과 귀염성에서 디테일과 의류전공 여부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65>에서 귀염성에 대한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의류전공자들이 비전공자들보다 프릴이나 퍼프와 같은 디테일에 대해 귀염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모피, 플라운스, 비즈는 귀염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66>에서 매력성에 대한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의류전공자들이 비전공자들보다 리본, 퍼프, 비즈, 자수를 더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의류전공자들은 의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복디테일에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전공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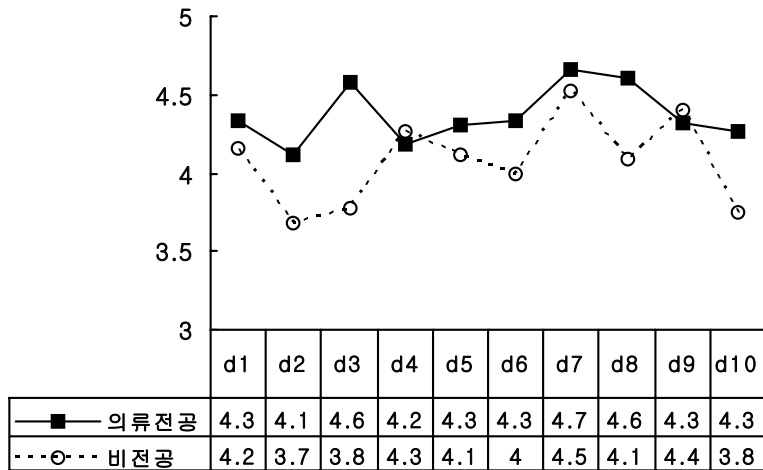
변량원		매력성 <i>F</i>	장식성 <i>F</i>	귀염성 <i>F</i>	복고성 <i>F</i>	여성성 <i>F</i>
주효과	디테일(A)	4.43***	41.35***	29.15***	35.87***	7.05***
	전공(B)	27.03***	.67	.01	.81	12.48***
2원상호 작용효과	A×B	2.47**	1.66	2.07*	1.39	1.83
변인	속성	<i>M</i>	<i>M</i>	<i>M</i>	<i>M</i>	<i>M</i>
의류 전공여부	의류전공	4.36	4.81	3.67	4.29	5.03
	비전공	4.08	4.81	3.62	4.23	4.83

* $p < .05$ ** $p < .01$ *** $p < .001$, a~g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1: 프릴 d2: 리본 d3: 퍼프 d4: 단추 d5: 끈장식
d6: 모피장식 d7: 플라운스 d8: 비즈 d9: 러플 d10: 자수

<그림 65> 귀염성 평가에 대한 전공 및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d1: 프릴 d2: 리본 d3: 퍼프 d4: 단추 d5: 끈장식
d6: 모피장식 d7: 플라운스 d8: 비즈 d9: 러플 d10: 자수

<그림 66> 매력성 평가에 대한 전공 및 의복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5) 의복디테일의 선호도 비교

지각자의 성별, 연령, 전공에 따른 의복디테일 각각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과 전공에 따라 의복디테일의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성별에 따른 의복디테일 선호도가 플라운스($t=4.21$, $p<.001$), 끈장식($t=2.54$, $p<.05$), 퍼프($t=2.47$,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플라운스, 끈장식, 퍼프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특히 플라운스는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선호하는 디테일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의복디테일에 대한 남자의 선호도 평균값이 대체적으로 여자의 평균값보다 높았다. 이는 남자들이 단순한 것보다 장식적인 디테일이 있는 옷에 더 호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에 나타난 전공에 따른 의복디테일 선호도의 차이는 모피장식($t=-3.15$, $p<.01$), 퍼프($t=-3.11$, $p<.01$), 플라운스($t=-1.96$, $p<.05$)에서 유의한

<표 5> 성별, 전공에 따른 의복디테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문항	성별		t	전공		t
	남자 (n=94)	여자 (n=127)		의류전공	비전공	
프릴	5.47	5.24	1.42	5.24	5.37	-.70
리본	4.93	5.16	-1.18	5.07	5.05	.08
퍼프	5.80	5.35	2.47*	5.05	5.70	-3.11**
단추	4.30	4.39	-.42	4.55	4.28	1.10
끈장식	5.88	5.46	2.54*	5.40	5.72	-1.70
모피장식	5.64	5.44	1.04	4.93	5.64	-3.15**
플라운스	5.78	4.97	4.21***	4.86	5.32	-1.96*
비즈	5.18	5.35	-.81	5.40	5.27	.48
러플	6.17	6.00	.94	5.95	6.08	-.59
자수	5.86	5.58	1.49	5.81	5.63	.80

* $p<.05$, ** $p<.01$, *** $p<.001$

차가 있었다. 모피장식, 퍼프, 플라운스 모두 비전공자들이 의류전공자들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퍼프슬리브에 대해 의류전공자들이 비전공자보다 매력성은 낮게 평가하였으나 선호도는 높았으므로 매력성 평가와 선호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극물에 따른 의복 선호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F값이 24.50($p < .001$)이므로 의복디테일의 따른 선호도의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러플이 a집단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디테일이며 단추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러플에 이어 자수, 끈장식, 퍼프, 모피장식이 b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c집단에는 퍼프, 모피장식, 프릴, 비즈가 포함된다. 모피장식, 프릴, 비즈, 플라운스는 d집단이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e집단에는 리본, 플라운스, 비즈가 속해 있다.

<표 6> 자극물에 따른 의복선호도의 차이

자극물 \ 선호도	d4	d2	d7	d8	d1	d6	d3	d5	d10	d9
선호도	4.35	5.06	5.23	5.30	5.33	5.50	5.54	5.64	5.67	6.05
F=24.50***	<div style="text-align: right;">--->f</div> <div style="text-align: right;">----->e</div> <div style="text-align: right;">----->d</div> <div style="text-align: right;">----->c</div> <div style="text-align: right;">----->b</div> <div style="text-align: right;">-->a</div>									

*** $p < .001$ a-f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1: 프릴 d2: 리본 d3: 퍼프 d4: 단추 d5: 끈장식

d6: 모피장식 d7: 플라운스 d8: 비즈 d9: 러플 d10: 자수

IV. 결론 및 제언

레트로는 사회가 급속히 발달하면서 드러나는 정신적인 빈곤함을 과거 인간중심의 감성적 언어로 충족시키는 것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레트로 현상은 채용의 과정을 통하여 선행양식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재현의 형식으로 풍자되며 사회동조 현상으로 재창조되어 전파된다. 로맨틱은 현대에 접어들면서 형식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중시하여 감정, 직관, 느낌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여 각기 다른 개체들이 결합함으로써 무한한 창조의 영감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레트로로맨틱은 과거양식의 재현, 재창조의 과정을 인간중심의 감성적 언어로 충족시키며 과거양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새로운 흐름으로 부각되고 있다.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의 흐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므로, 현대 패션에서 레트로로맨틱의 등장은 현대인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본능과 함께 시대적, 공간적, 상황적 현상의 모든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근세의 르네상스시대부터 근대 로맨틱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장식적인 디테일들이 자유롭게 결합되는 스타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의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고찰을 통하여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레트로로맨틱 의복디테일을 중심으로 시각적 평가를 실시하여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에 나타난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을 파악하고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디테일의 시각적 평가에 대한 차원을 분류하며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 연령, 전공에 따른 시각적 평가와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패션디자인 연구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연구 결과,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레트로로맨틱 패션에는 과장된 조형성이 있다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현재의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 과거의 화려하며 장식적인 스타일을 표방하는 것으로 과장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과장된 복식은 공간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커지며 어느 한 부분이 강조되는데 이때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은 함축적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의 패션을 창조하게 된다.

둘째,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화려한 장식성을 지닌다 미학적으로 볼 때 장식은 일종의 형식충동을 계기로 하는 예술이며 장식이 갖는 미적 효과는 여러 예술현상 속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도 화려한 장식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인위적이며 비감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더욱 더 강한 미적, 정신적 욕구를 분출하여 새로운 심미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다원적 복고성을 나타낸다 현대는 형식주의적인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개방성,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로 특히 패션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중첩되어 사용되고 있다 시간성이 반영된 레트로로맨틱 패션에서는 과거를 풍미했던 스타일 실루엣, 특정 아이템이 현대적 재질, 기술, 디자인과 결합함으로써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닌 이미지의 차용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위와 같은 미적 특성을 근거로 레트로로맨틱 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프릴 러플, 플라운스, 비즈, 자수, 리본, 끈장식, 모피장식, 단추, 셔링을 이용한 퍼

프슬리브의 10개의 디테일을 선정하여 시각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디테일 평가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력성, 장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의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의복디테일의 장식성, 귀염성, 복고성, 여성성을 모두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자극물에 대하여 섬세하게 반응하여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디테일이 더 장식적이면서 여성성이 높다고 지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의복디테일에 따른 지각은 5개 요인의 모든 평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프릴과 플라운스, 퍼프는 여성성이 강한 디테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플라운스는 가장 매력적인 디테일이었다. 러플은 여성성과 장식성이 강한 디테일로, 단추는 복고성이 높은 디테일로 지각되었다. 또한 리본과 끈장식은 귀염성이 높은 디테일이었다.

셋째, 의복디테일과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매력성과 여성성은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리본과 퍼프슬리브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매력적이며 여성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전공에 따른 의복디테일 선호도의 차이는 모피장식, 퍼프, 플라운스 모두 비전공자들이 의류전공자들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퍼프슬리브에 대해 의류전공자들이 비전공자보다 매력성은 낮게 평가하였으나 선호도는 높았으므로 매력성 평가와 선호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의복디테일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플라운스, 끈장식, 퍼프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특히 플라운스는 눈에 띄는 디테일이었다. 전공에 따른 차이에서 모피장식, 퍼프, 플라운스 모두 비

전공자들이 의류 전공자들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비전공자들은 전공자에 비해 퍼프슬리브의 매력성은 낮게 평가하였으나 선호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프릴과 플라운스, 퍼프는 여성스러운 디테일로 특히 플라운스는 가장 매력적으로 지각되었다. 리플은 장식적인 특성이 강하였으며, 단추는 복고적인 디테일로 지각되었고 리본과 끈장식은 귀여운 디테일로 나타났다. 모피와 자수는 장식성이 높았으나 귀염성은 낮은 편이었다. 남자는 여자보다 퍼프, 플라운스를 선호하였으며 여자는 리본과 비즈를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시각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이론적 고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시각적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이러한 결과를 디자인 발상에 활용하면 유행으로써의 심미성 뿐 만 아니라 상품성까지 갖추게 되어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레트로로맨틱 패션은 의복 디테일에 의해 그 특성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점이다. 즉, 플라운스, 퍼프 등의 디테일은 여성성을 통하여 조형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모피 비즈 등은 장식적인 특성을, 단추는 복고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연구를 근거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의복디테일을 분석해 나간다면 레트로로맨틱은 패션트렌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색을 통제하여 흑백 사진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실물평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둘째, 착용자의 자세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같은 디테일이라도 그것이 사용된 의복디자인이나 위치, 형

태, 실루엣 등에 따라 시각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복형태를 자극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자극물 선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조사 대상자가 자극물을 이해한 정도나 조사대상자의 연령 폭이 다양하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조사와 함께 다양한 자극물을 사용하여 폭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레트로로맨틱 패션디자인과 디테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현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 권기영. “과학기술과 결합된 패션디자인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 (2004), pp.88-99.
- 김경원, 탁혜령, 고애란. “의복스타일에 따른 인상 형성에서의 순서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7) (2004), pp.995-1006.
- 김미지자. “Texture와 Colour Coordination의 감성공학적 Technology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6.
- 김민수. 「김민수의 문화디자인」. 서울: 다우, 2002.
- _____. 「모던디자인 비평」. 서울: 안그래픽스, 1994.
-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I).” 「복식」, 38(5) (1998), pp.369-392.
- _____. 「복식미학 강의 1」. 서울: 교문사, 2004.
- _____.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2004.
- 김영한, 임지현. 「서양의 지적 운동」.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김유진, 이경희. “의복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따른 감성연구” 「복식」, 24(7) (2000), pp.976-986.
- _____. “현대패션에 대한 감성과 감정의 관계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7(3/4) (2003), pp.418-428.
- 김윤경, 강경자.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 27(3/4) (2003), pp.395-406.

- 김윤경, 이경희.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 「복식」, 24(6) (2000), pp.861-872.
- 김은애, 김혜경, 나영주, 신윤숙, 오경화, 유혜경, 전양진, 홍경희. 「패션소재 기획과 정보」. 서울: 교문사, 2000.
- 김일분, 유태순. “의복 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복식」, 45(7) (1999), pp.103-119.
- 김정숙. “공간조형을 이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김종복. 「패션트렌드컬러 키워드」. 서울: 도서출판 시대, 2003.
- 김지연. “유비쿼터스 환경 특성에 의한 디지털 의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 57(3) (2007), pp.23-36.
- 김지연, 이경희. “현대패션에 나타난 인체노출의 감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2001), pp.913-924.
- 김진수. 「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는가」. 서울: 책세상, 2001.
- 김현진, 간호섭. “현대 Retro 패션에 나타난 Mix & Match Style에 관한 연구: '03 s/s ~'04 f/w까지의 최근 레트로 경향 중심으로” 「디자인포럼」, 21(7) (2004), pp.83-103.
- 나현신, 전해정.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찬 라크로아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4) (2000), pp.463-474.
- 나현신.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19C와 20C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 남형주. “현대 트렌드에 나타난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2005.

- 린다 허치언(Linda Hutcheon). 김상구, 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5.
- 릴리언 R. 프러스트(Lilian R. Frust), 이상옥 역. 「낭만주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문주영, 강경자. "상·하의 배색과 하의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1) (2003), pp.111-122.
- 박금옥.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6.
- 박셋별.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 박소향, 김인숙. "남자대학생의 여성복 이미지 평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2) (1994), pp.170-179.
- 박신영, 조규화. "로맨틱 복식 양식 연구: 21세기 전후 여성 패션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1(1) (2007), pp.48-60.
- 박윤정, 양숙희.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Historicism)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1) (2000), pp.87-101.
- 박은희. "계몽주의시대 여성복식의 미적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 박준원. 「미학특강」.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2.
- 박혜선. 「패션마케팅과 머천다이징」. 서울: 학문사, 2002.
- 배정민, 김영삼.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과 다원적 절충주의 분석 연구." 「복식문화연구」, 14(4) (2006), pp.654-667.
- 백영자, 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1998.
- 신명진. "남성수트(Suit)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 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98.
- 안광숙. “복식에 표현된 복고경향: 19세기와 20세기 여성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4.
- 앤드류 투커, 탐신 킹스웰, 김은옥 역. 「패션의 유혹」. 서울: 예담, 2003.
- 양리나, 최나영. 「패션연출」. 서울: 대왕사, 2000.
- 양보라. “9·11테러와 이라크전쟁이 현대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4.
- 에리카 티엘(Erika Thiel). 양숙희 역. 「복식과 예술: 예술가와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1997.
- 오선아. “임부복의 의복범주 및 장식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6.
- 오인영, 김인숙.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TV 뉴스 여자 앵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0(11) (2006), pp.1636-1647.
- 오현정, 이은영. “의복에서의 조형미와 유행평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1990), pp.234-251.
- 유진경. “레트로로 표현된 로맨틱이미지 패션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3) (2006), pp.49-58.
- 윤진아. “여자 속옷의 걸옷화 현상과 패턴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 이경아.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이경희. “의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4.
- 이명희.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

- 국의류학회지」, 26(3/4) (2002), pp.503-514.
- _____. “지각자의 유행관여가 의복색 지각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27(7) (2003), pp.851-561.
- 이미연. “진즈(Jeans)의 가공(Finishing)에 따른 이미지 평가 연구: 미국 L.A. 거주 대학생을 중심으로.” 「복식」, 56(7) (2006), pp.18-32.
- 이미연, 이명희.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1보): 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5) (2000), pp.724-735.
- _____.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2보): 소재, 소매와 장식유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8) (2002), pp.1216-1227.
- 이선재. 「의상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1998.
- 이순홍, 손희정, 김희정, 김경희. 「복식문화와 유행정보」.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이연희, 이운영, 이현숙, 진성모. 「패션문화」. 서울: 예학사, 2002.
- 이순홍.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1) (2003), pp.20-46.
- 이슬아. “패션에 나타난 비즈장식 디자인 연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용희, 강경자. “원피스드레스의 소매와 스커트 폭 길이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6) (1997), pp.1060-1071.
-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1987.
- 이정후, 양숙희.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Indeterminancy).” 「복식」, 45 (1999), pp.179-199.

- 이주현, 강혜원.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 보):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1995), pp.984-994.
- 이주현, 조궁호.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 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1995), pp.747-764.
-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0.
- 이혜숙. “복식무늬가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무늬종류, 형태, 배열의 종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7) (1999), pp.921-928.
- 이홍규. 「칼라이미지사전」. 서울: 조형사, 1994.
- 이효진. “21세기 로맨틱시즘, 걸리쉬 패션.” 「복식」, 53(7) (2003), pp.111-123.
- 임신영, 허재두. “상황인식 컴퓨터 응용기술 동향.” 「전자통신 동향분석」, 19(5) (2004), pp.21-30.
- 임옥수. “복식에서의 장신구 역할 및 미적 기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2000), pp.191-211.
- 잉그리드 로쉬(Ingrid Losch), 이재원 역. 「여성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서울: 한길아트, 1998.
-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 장학사, 1980.
- 정미진. “꽃문양을 활용한 레트로 테크놀러지 패션 디자인 연구” 「복식」, 56(7) (2006), pp.105-120.
- 정옥임. 「인체와 피복」. 서울: 수학사, 1985.

- 정인희, 이은영. “의복 이미지의 구성요인과 평가차원에 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6(4) (1992), pp.379-391.
-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5.
- _____.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93.
- 조동제, 김주야, 신소영. 「색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2001.
- 조은영, 홍병숙. “여성의 신체노출 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9(5) (1995), pp.723-737.
- 조철제. 「독일문학사」.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78.
- 주미영, 김영인. “패션에 있어서 시간성이 반영된 룩에 관한 고찰” 「복식」, 56(6) (2006), pp.1-15.
- 주소현, 이경희. “의복, 배경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3(2) (1999), pp.196-207.
- 채선미, 유영선.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맨틱시즘 경향” 「복식」, 45(7) (1999), pp.56-69.
- 최수현. “복식의 미적 범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 최해주, 안은경.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2) (2003), pp.137-151.
- 최현숙. “현대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 「동덕여성연구」, 제4호, pp.132-141.
- 최혜정.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현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9.
- 추선형, 김영인. “패션소재의 색채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2) (2002), pp.193-204.

- 클레어 필립스(Clare Phillips), 김숙 역. 「장신구의 역사: 고대에서 현대까지」.
서울: 시공아트, 2003.
- 팽숙경, 강경자. "착용자의 체형과 의복유형, 무채색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9/10) (2005), pp. 1207-1218.
- 하수진, 이경희. "브래지어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 감성연구(제1보)." 「복식」, 23(5) (1999), pp.635-644.
- 한정숙, 류숙희. "테일러드 재킷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칼라길이, 단추 수, Single/Double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8) (1997), pp.1376-1386.
- 함연자, 김민자. "20세기 초 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신고전주의 양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형식의 명료성을 중심으로." 「복식」, 56(4) (2006), pp. 148-159.
- 황미선, 이명희. "지각자의 성격특성이 의복의 시각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복식」, 55(7) (2005), pp.89-100.
- 히로코 이주카(Hiroco Iizuka), 예코 우치다(Yaeko Uchida), 사치코 카가와(Sachiko Kagawa), 조진숙, 이민경 역. 「복식디자인」. 서울: 수학사, 2005.
- Baudot, François.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Universe Publishing, 2006.
- Blum, Stella. *Victorian Fashions and Costumes from Harper's Bazaar: 1867-1898*.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4.
- _____. *Ackermann's Costume Plate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78.

- Boucher, François. *20,000 Years of Fashion*. London: Harry N. Abrams Inc., 1987.
- Buxbaum, Gerda.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Prestel, 2005.
- Callan, O. Georgina.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New York: Thames and Hudson, 2002.
- Cassin, Jack. *The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Costume and Fashion*. London: Studio Vista, 1995.
- Connikie, Yvonne. *Fashions of a Decade the 1960s*. New York: Facts on File, 1990.
- Constantino, Maria. *Fashion of A Decade*. New York: Facts on File, 1992.
- Golbin, Pamela. *Fashion Designers*. New York: Watson-Guption Publications, 2001.
- HyeSook, Park, & JaeJung, Lee. "Wearable Technology with Future Fabr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 30(12) (2006), pp.1800-1809.
- Jenkyn, Sue. *Fashion Design*. New York: Watson Guption, 2005.
- Kelly, Clinton, & Stacy, London. *Dress Your Best*. 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05.
- Kopkin, Andrew. *Inside the Fashion Business: Mysteries of Fashion Revealed*. New York: John Weley and Sons Inc., 1981.
- Kressley, Carson. *Off the Cuff*. New York: Dutton, 2004.
- Laver, James. *Costume and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1985.
- _____. *Costume and Fashion: A Concise History*. London: Thames and

- Hudson, 2002.
- Martin, Richard. *The St. James Fashion Encyclopedia: A Survey of Style from 1945 to the present*. Detroit: Visible Ink Press, 1995.
- Mendes, D. Valerie, Amy, De la Haye, & Valerie, Mendes. *20th Century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2005.
- Murray, P. Maggie. *Changing Styles in Fashion: Who, What, Why*.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89.
- O'hara, Georgina.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86.
- Peacock, John. *The Chronicle of Western Fashion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London: Thames and Hudson, 1991.
- Picken, Mary. *A Dictionary of Costume and Fashion: Historic and modern*.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1999.
- Polhemus, Ted.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1994.
- Ribeiro, Aileen. *Dress and Morality*. New York: Holmes and Meier Publishers, Inc., 1986.
- Roach-Higgins, E. Mary.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95.
- Rodrigue, Gilberte. *Costume et de la Mode*. Paris: Grund, 1984.
- Sproles, B. George. *Changing Appearanc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87.
- Steel, Valerie. *Fifty Years of Fashion*.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Tapscott, Don. *Blueprint to the Digital Economy*. New York: McGraw Hill,

1998.

_____.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ew York: McGraw Hill, 1998.

_____, Ticoll, David, & Lowy, Alex. *Digital Capital*.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Tortora, G. Phyllis, & Eubank, Keith. *Historic Costume: 2nd edit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94.

_____, & Merkel, S. Robert. *Fairchild's Dictionary of Textile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1996.

Vincent-Ricard, Françoise. *Raison and Passion*. Paris: Berger-Levrault, 1993.

Watson, Linda. *20th Century Fashion*. Buffalo: Firefly Books, 2004.

Webster, Elaine. "Dressing for real and Imagined Space." *The Journal of Cloth and Culture*, 4(2) (2006), pp.164-175.

Woodal, Trinny, & Susannah, Constantine. *What You Wear Can Change Your Life*. New Youk: Riverhead Books, 2005.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 뉴욕 발표.” 동아일보. 2007, 2. 21

Spring 2000-Fall 2007 Womens Collections. *The Online Home of Vogue & W*. retrieved February 2-April 10, 2007, from <http://www.style.com>

ABSTRACT

A Study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Visual Evaluation of Retro-Romantic Fashion

Mal-Hee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2000,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is revealing its limitation with criticisms for uniformed thoughts and lacking in humanity. This has called for a turning point of searching for a new direction for the society. The trend of retro romanticism that values emotions and spirits with the reminiscence of the past has come to root its place in the society. Because fashion is a mode of expression not only for the society and the culture but also the inner value of human kind, the appearance of retro romanticism in modern fashion is reflective of the values of the modern people. This study attempts to inquire about the theories of retro romantic fashion as well as its aesthetic value. It also endeavors to empirically research on visual evaluation of retro romantic fashion in hopes to demonstrate and understand the uniqueness of this particular fashion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retro romantic fashion that are revealed in the literature.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dimensions of the visual evaluation of the costume details of the retro romantic fashion and to research on the costume details and the visual evaluation by evaluators' gender, age, and major, and on their preferences. In addition, with this study as the basis, recommendations for detailed resources as well as information for further studies and design development will be provided.

Literature review and quantitative research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on retro romanticism encompassed resources on aesthetics, literature, architecture as well as art, includ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fashion related literatures, fashion pictures taken mostly from Paris and Milan. These were limited to modern fashion pictures that were taken after the year 2000. Based on the pictures, 10 costume details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questions and data were collected. All 446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were college students (males and females) residing in or near Seoul. Data were collected in March, 2007.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which included: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reliability analysis, three-way ANOVA, two-way ANOVA,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nd the t-test.

As a result of study, thre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the retro romantic fashion were presented.

First, retro romantic fashion has an exaggerated formativeness. Retro romantic fashion has overcome the confinement of the present to imitate the splendor and decorative style of the past which results in exaggeration. Exaggerated costume tends to be spaciouly bigger and emphasizes one

particular part which offers implicated significance for the space between the body and the costume. A new visual fashion is created through this space.

Second, retro romantic fashion encompasses gorgeous decorativeness. From an artistic point of view, decorations are part of impulsively formulated art. Artistic effects of such decorations are uniformly confirmed in various artistic states. Therefore, through gorgeous decorations, retro romantic fashion rejects artificiality and lack of sensitivity for new effects of aesthetics through expression of stronger artistic and spiritual desires.

Third, retro romantic fashion expresses pluralistic retro. The current society has left the formalities of the modernism for a pluralistic society where openness, diversity, and uniqueness are respected. Such components of the pluralistic society are repetitively used in fashion. Time reflective retro romantic fashion is being recreated by borrowing images rather than replaying the historical contents, with the style, silhouette, and specific items that swayed in the past, being combined with modern materials, techniques, and designs.

The results of visual evaluation of retro romantic fashion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of the costume detail evaluation, five factors including attractiveness, decorativeness, cuteness, retro, and femininity surfaced.

Second,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vealed that women rated decorative, cute, retro, and feminine characteristics higher than men did. This can be explained by asserting that women reacted more sensitively to the stimulus and recognized retro romantic fashion details to be

more decorative and feminine than men. However, ag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 of all the five factors on costume details. Frills, flounces, and puffs were evaluated to have strong feminine details. Flounces, in particular, were considered to be the most attractive details. Ruffles were recognized to have strongly feminine and decorative details, while buttons were recognized to have strongly retro details. In addition, the decorations of ribbons and strings were recognized as having strongly cute details.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s in attractiveness and femininity depending on costume details and evaluators' gender. Women evaluated ribbons and puff sleeves to be more attractive and feminine than men.

Fourth, subjects majoring in fashion valued attractiveness and femininity of the stimulus over non-fashion majoring subject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corativeness, cuteness, retro and femininity.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s in the evaluation of attractiveness and cuteness depending on details and the evaluators' majors.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s of costume details depending on gender. Flounces, string decorations, and puffs were more preferred by men than women. In particular, flounces were a detail significantly preferred by men. Differences in preference depending on majors showed that non-fashion majors highly preferred fur decorations, puffs, and flounces than fashion majors did. Therefore, although non-fashion majors rated the attractiveness of puff-sleeves lower than fashion majors, their

preferences can still be considered high.

As can be seen, by studying artistic considerations of retro romantic fashion as well as researching visual evaluation of costume details, the uniqueness of retro romantic fashion was determined. This study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etro romantic fashion as well as provide assistance to developing various fashion designs based on individual images.

부 록 1

의복 이미지 평가에 관한 질문지

의복 이미지 평가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의복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며,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조말희 드림

I. 다음은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의복 이미지를 나타내는 양극으로 된 형용사입니다. 각각의 형용사에 대하여 제시된 그림의 의복 장식이 해당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고, 한 개의 번호에 표(√)하십시오.

응답요령 : 제시된 의복 장식이 화려한 이미지보다 훨씬 수수한 이미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1번에 표(√)하십시오.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화려한-----	7	6	5	4
	3	2	1	수수한

<d1> 프릴



- | | 매우
그렇다 | 중간 | 매우
그렇다 | |
|------------|-----------|----|-----------|--------------------------|
| 1. 눈에 띄는 | -- 7 | 6 | 5 | 4 - 3 - 2 - 1 - 눈에 띄지 않는 |
| 2. 내가 좋아하는 | - 7 | 6 | 5 | 4 - 3 - 2 - 1 - 내가 싫어하는 |
| 3. 개성적인 | --- 7 | 6 | 5 | 4 - 3 - 2 - 1 - 평범한 |
| 4. 품위 있는 | --- 7 | 6 | 5 | 4 - 3 - 2 - 1 - 품위없는 |
| 5. 세련된 | ---- 7 | 6 | 5 | 4 - 3 - 2 - 1 - 촌스러운 |
| 6. 자연스러운 | -- 7 | 6 | 5 | 4 - 3 - 2 - 1 - 어색한 |
| 7. 단정한 | ---- 7 | 6 | 5 | 4 - 3 - 2 - 1 - 단정하지 않은 |
| 8. 매력 있는 | --- 7 | 6 | 5 | 4 - 3 - 2 - 1 - 매력없는 |
| 9. 섹시한 | ---- 7 | 6 | 5 | 4 - 3 - 2 - 1 - 섹시하지 않은 |
| 10. 고상한 | ---- 7 | 6 | 5 | 4 - 3 - 2 - 1 - 천박한 |
| 11. 아름다운 | --- 7 | 6 | 5 | 4 - 3 - 2 - 1 - 아름답지 않은 |
| 12. 활동적인 | --- 7 | 6 | 5 | 4 - 3 - 2 - 1 - 비활동적인 |
| 13. 복고적인 | --- 7 | 6 | 5 | 4 - 3 - 2 - 1 - 복고적이지 않은 |
| 14. 화려한 | ---- 7 | 6 | 5 | 4 - 3 - 2 - 1 - 수수한 |
| 15. 귀여운 | ---- 7 | 6 | 5 | 4 - 3 - 2 - 1 - 귀엽지 않은 |
| 16. 과장된 | ---- 7 | 6 | 5 | 4 - 3 - 2 - 1 - 과장되지 않은 |
| 17. 여성적인 | --- 7 | 6 | 5 | 4 - 3 - 2 - 1 - 남성적인 |
| 18. 발랄한 | ---- 7 | 6 | 5 | 4 - 3 - 2 - 1 - 발랄하지 않은 |
| 19. 낭만적인 | --- 7 | 6 | 5 | 4 - 3 - 2 - 1 - 낭만적이지 않은 |
| 20. 돋보이는 | --- 7 | 6 | 5 | 4 - 3 - 2 - 1 - 돋보이지 않는 |
| 21. 장식적인 | --- 7 | 6 | 5 | 4 - 3 - 2 - 1 - 단순한 |

<d2> 리본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눈에 띄는 -- 7 - 6 - 5 - 4 - 3 - 2 - 1 - 눈에 띄지 않는
2. 내가 좋아하는 - 7 - 6 - 5 - 4 - 3 - 2 - 1 - 내가 싫어하는
3. 개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평범한
4. 품위 있는 -- 7 - 6 - 5 - 4 - 3 - 2 - 1 - 품위없는
5. 세련된 ----- 7 - 6 - 5 - 4 - 3 - 2 - 1 - 촌스러운

6. 자연스러운 -- 7 - 6 - 5 - 4 - 3 - 2 - 1 - 어색한
7. 단정한 ----- 7 - 6 - 5 - 4 - 3 - 2 - 1 - 단정하지 않은
8. 매력있는 --- 7 - 6 - 5 - 4 - 3 - 2 - 1 - 매력없는
9. 섹시한 ----- 7 - 6 - 5 - 4 - 3 - 2 - 1 - 섹시하지 않은
10. 고상한 ----- 7 - 6 - 5 - 4 - 3 - 2 - 1 - 천박한

11. 아름다운 --- 7 - 6 - 5 - 4 - 3 - 2 - 1 - 아름답지 않은
12. 활동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비활동적인
13. 복고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복고적이지 않은
14. 화려한 ----- 7 - 6 - 5 - 4 - 3 - 2 - 1 - 수수한
15. 귀여운 ----- 7 - 6 - 5 - 4 - 3 - 2 - 1 - 귀엽지 않은

16. 과장된 ----- 7 - 6 - 5 - 4 - 3 - 2 - 1 - 과장되지 않은
17. 여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남성적인
18. 발랄한 ----- 7 - 6 - 5 - 4 - 3 - 2 - 1 - 발랄하지 않은
19. 낭만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낭만적이지 않은
20. 돋보이는 --- 7 - 6 - 5 - 4 - 3 - 2 - 1 - 돋보이지 않는
21. 장식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단순한

뒷면에 계속

<d4> 단추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눈에 띄는 -- 7 - 6 - 5 - 4 - 3 - 2 - 1 - 눈에 띄지 않는
2. 내가 좋아하는 - 7 - 6 - 5 - 4 - 3 - 2 - 1 - 내가 싫어하는
3. 개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평범한
4. 품위 있는 -- 7 - 6 - 5 - 4 - 3 - 2 - 1 - 품위없는
5. 세련된 ----- 7 - 6 - 5 - 4 - 3 - 2 - 1 - 촌스러운

6. 자연스러운 -- 7 - 6 - 5 - 4 - 3 - 2 - 1 - 어색한
7. 단정한 ----- 7 - 6 - 5 - 4 - 3 - 2 - 1 - 단정하지 않은
8. 매력있는 --- 7 - 6 - 5 - 4 - 3 - 2 - 1 - 매력없는
9. 섹시한 ----- 7 - 6 - 5 - 4 - 3 - 2 - 1 - 섹시하지 않은
10. 고상한 ----- 7 - 6 - 5 - 4 - 3 - 2 - 1 - 천박한

11. 아름다운 --- 7 - 6 - 5 - 4 - 3 - 2 - 1 - 아름답지 않은
12. 활동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비활동적인
13. 복고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복고적이지 않은
14. 화려한 ----- 7 - 6 - 5 - 4 - 3 - 2 - 1 - 수수한
15. 귀여운 ----- 7 - 6 - 5 - 4 - 3 - 2 - 1 - 귀엽지 않은

16. 과장된 ----- 7 - 6 - 5 - 4 - 3 - 2 - 1 - 과장되지 않은
17. 여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남성적인
18. 발랄한 ----- 7 - 6 - 5 - 4 - 3 - 2 - 1 - 발랄하지 않은
19. 낭만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낭만적이지 않은
20. 돌보이는 --- 7 - 6 - 5 - 4 - 3 - 2 - 1 - 돌보이지 않는
21. 장식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단순한

뒷면에 계속

<d5> 끈 장식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눈에 띄는 -- 7 - 6 - 5 - 4 - 3 - 2 - 1 - 눈에 띄지 않는
2. 내가 좋아하는 - 7 - 6 - 5 - 4 - 3 - 2 - 1 - 내가 싫어하는
3. 개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평범한
4. 품위 있는 -- 7 - 6 - 5 - 4 - 3 - 2 - 1 - 품위없는
5. 세련된 ----- 7 - 6 - 5 - 4 - 3 - 2 - 1 - 촌스러운

6. 자연스러운 -- 7 - 6 - 5 - 4 - 3 - 2 - 1 - 어색한
7. 단정한 ----- 7 - 6 - 5 - 4 - 3 - 2 - 1 - 단정하지 않은
8. 매력있는 --- 7 - 6 - 5 - 4 - 3 - 2 - 1 - 매력없는
9. 섹시한 ----- 7 - 6 - 5 - 4 - 3 - 2 - 1 - 섹시하지 않은
10. 고상한 ----- 7 - 6 - 5 - 4 - 3 - 2 - 1 - 천박한

11. 아름다운 --- 7 - 6 - 5 - 4 - 3 - 2 - 1 - 아름답지 않은
12. 활동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비활동적인
13. 복고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복고적이지 않은
14. 화려한 ----- 7 - 6 - 5 - 4 - 3 - 2 - 1 - 수수한
15. 귀여운 ----- 7 - 6 - 5 - 4 - 3 - 2 - 1 - 귀엽지 않은

16. 과장된 ----- 7 - 6 - 5 - 4 - 3 - 2 - 1 - 과장되지 않은
17. 여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남성적인
18. 발랄한 ----- 7 - 6 - 5 - 4 - 3 - 2 - 1 - 발랄하지 않은
19. 낭만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낭만적이지 않은
20. 돋보이는 --- 7 - 6 - 5 - 4 - 3 - 2 - 1 - 돋보이지 않는
21. 장식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단순한

II. 다음 내용의 해당 항목에 표(v)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p>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p> <p>2. 귀하의 나이는? 만 _____ 세</p> <p>3. 귀하의 거주지는? 1) 서울 강남 2) 서울 강북 3) 경기도</p> <p>4. 귀하의 전공은? 1) 의류 전공</p> <p style="margin-left: 150px;">2) 비의류 전공인 경우 →① 인문사회계</p> <p style="margin-left: 180px;">② 자연계</p> <p style="margin-left: 180px;">③ 예체능계</p>
--

감사합니다.

의복 이미지 평가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의복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며,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조말희 드림

I. 다음은 레트로로맨틱 패션의 의복 이미지를 나타내는 양극으로 된 형용사입니다. 각각의 형용사에 대하여 제시된 그림의 의복 장식이 해당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고, 한 개의 번호에 표(v)하십시오.

응답요령 : 제시된 의복 장식이 화려한 이미지보다 훨씬 수수한 이미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1번에 표(v)하십시오.

	매우 그렇다	7	-	6	-	5	-	4	-	3	-	2	-	1	수수한	

<d6> 모피장식



- | | | | |
|--|-----------|----|-----------|
| | 매우
그렇다 | 중간 | 매우
그렇다 |
|--|-----------|----|-----------|
1. 눈에 띄는 -- 7 - 6 - 5 - 4 - 3 - 2 - 1 - 눈에 띄지 않는
 2. 내가 좋아하는 - 7 - 6 - 5 - 4 - 3 - 2 - 1 - 내가 싫어하는
 3. 개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평범한
 4. 품위 있는 --- 7 - 6 - 5 - 4 - 3 - 2 - 1 - 품위 없는
 5. 세련된 ----- 7 - 6 - 5 - 4 - 3 - 2 - 1 - 촌스러운

 6. 자연스러운 -- 7 - 6 - 5 - 4 - 3 - 2 - 1 - 어색한
 7. 단정함 ----- 7 - 6 - 5 - 4 - 3 - 2 - 1 - 단정하지 않은
 8. 매력 있는 --- 7 - 6 - 5 - 4 - 3 - 2 - 1 - 매력 없는
 9. 섹시함 ----- 7 - 6 - 5 - 4 - 3 - 2 - 1 - 섹시하지 않은
 10. 고상함 ----- 7 - 6 - 5 - 4 - 3 - 2 - 1 - 천박한

 11. 아름다운 --- 7 - 6 - 5 - 4 - 3 - 2 - 1 - 아름답지 않은
 12. 활동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비활동적인
 13. 복고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복고적이지 않은
 14. 화려한 ----- 7 - 6 - 5 - 4 - 3 - 2 - 1 - 수수한
 15. 귀여운 ----- 7 - 6 - 5 - 4 - 3 - 2 - 1 - 귀엽지 않은

 16. 과장된 ----- 7 - 6 - 5 - 4 - 3 - 2 - 1 - 과장되지 않은
 17. 여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남성적인
 18. 발랄함 ----- 7 - 6 - 5 - 4 - 3 - 2 - 1 - 발랄하지 않은
 19. 낭만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낭만적이지 않은
 20. 돋보이는 --- 7 - 6 - 5 - 4 - 3 - 2 - 1 - 돋보이지 않는
 21. 장식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단순한

뒷면에 계속

<d8> 비즈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눈에 띄는 -- 7 - 6 - 5 - 4 - 3 - 2 - 1 - 눈에 띄지 않는
2. 내가 좋아하는 - 7 - 6 - 5 - 4 - 3 - 2 - 1 - 내가 싫어하는
3. 개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평범한
4. 품위 있는 -- 7 - 6 - 5 - 4 - 3 - 2 - 1 - 품위없는
5. 세련된 ----- 7 - 6 - 5 - 4 - 3 - 2 - 1 - 촌스러운

6. 자연스러운 -- 7 - 6 - 5 - 4 - 3 - 2 - 1 - 어색한
7. 단정함 ----- 7 - 6 - 5 - 4 - 3 - 2 - 1 - 단정하지 않은
8. 매력있는 --- 7 - 6 - 5 - 4 - 3 - 2 - 1 - 매력없는
9. 섹시함 ----- 7 - 6 - 5 - 4 - 3 - 2 - 1 - 섹시하지 않은
10. 고상함 ----- 7 - 6 - 5 - 4 - 3 - 2 - 1 - 천박한

11. 아름다운 --- 7 - 6 - 5 - 4 - 3 - 2 - 1 - 아름답지 않은
12. 활동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비활동적인
13. 복고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복고적이지 않은
14. 화려한 ----- 7 - 6 - 5 - 4 - 3 - 2 - 1 - 수수한
15. 귀여운 ----- 7 - 6 - 5 - 4 - 3 - 2 - 1 - 귀엽지 않은

16. 과장된 ----- 7 - 6 - 5 - 4 - 3 - 2 - 1 - 과장되지 않은
17. 여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남성적인
18. 발랄함 ----- 7 - 6 - 5 - 4 - 3 - 2 - 1 - 발랄하지 않은
19. 낭만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낭만적이지 않은
20. 돋보이는 --- 7 - 6 - 5 - 4 - 3 - 2 - 1 - 돋보이지 않는
21. 장식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단순한

뒷면에 계속

<d9> 러플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눈에 띄는 -- 7 - 6 - 5 - 4 - 3 - 2 - 1 - 눈에 띄지 않는
2. 내가 좋아하는 - 7 - 6 - 5 - 4 - 3 - 2 - 1 - 내가 싫어하는
3. 개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평범한
4. 품위 있는 -- 7 - 6 - 5 - 4 - 3 - 2 - 1 - 품위없는
5. 세련된 ----- 7 - 6 - 5 - 4 - 3 - 2 - 1 - 촌스러운

6. 자연스러운 -- 7 - 6 - 5 - 4 - 3 - 2 - 1 - 어색한
7. 단정한 ----- 7 - 6 - 5 - 4 - 3 - 2 - 1 - 단정하지 않은
8. 매력 있는 --- 7 - 6 - 5 - 4 - 3 - 2 - 1 - 매력없는
9. 섹시한 ----- 7 - 6 - 5 - 4 - 3 - 2 - 1 - 섹시하지 않은
10. 고상한 ----- 7 - 6 - 5 - 4 - 3 - 2 - 1 - 천박한

11. 아름다운 --- 7 - 6 - 5 - 4 - 3 - 2 - 1 - 아름답지 않은
12. 활동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비활동적인
13. 복고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복고적이지 않은
14. 화려한 ----- 7 - 6 - 5 - 4 - 3 - 2 - 1 - 수수한
15. 귀여운 ----- 7 - 6 - 5 - 4 - 3 - 2 - 1 - 귀엽지 않은

16. 과장된 ----- 7 - 6 - 5 - 4 - 3 - 2 - 1 - 과장되지 않은
17. 여성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남성적인
18. 발랄한 ----- 7 - 6 - 5 - 4 - 3 - 2 - 1 - 발랄하지 않은
19. 낭만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낭만적이지 않은
20. 돋보이는 --- 7 - 6 - 5 - 4 - 3 - 2 - 1 - 돋보이지 않는
21. 장식적인 --- 7 - 6 - 5 - 4 - 3 - 2 - 1 - 단순한

뒷면에 계속

부 록 2

레트로로맨틱 패션 이미지측정 형용사 쌍의 내용과 출처

레트로로맨틱 패션 이미지측정 형용사 쌍의 내용과 출처

구성요소	형용사쌍 문항내용	출 처										
		정인희 이은영 (1992)	박소향 김인숙 (1994)	이주현 조궁호 (1995)	조은영 홍병숙 (1995)	이용희 강경자 (1997)	주소현 이경희 (1999)	하수진 이경희 (1999)	이혜숙 (1999)	김일분 유태순 (1999)	이미연 이명희 (2000)	김유진 이경희 (2000)
매력성	세련된-촌스러 운	○	○	○	○		○			○	○	○
	매력있는-매력 없는	○		○	○	○		○	○	○		○
	아름다운-아름 답지않은		○				○				○	
	섹시한-섹시하 지않은	○	○	○	○	○		○		○	○	○
	눈에 띄는-눈에 띄지않는					○	○			○	○	
	품위 있는-품위 없는	○	○		○	○				○	○	
	자연스러운-어 색한		○						○			
장식성	장식적인-단순 한	○									○	
	과장된-과장되 지않은											○
	돋보이는-돋보 이지않는					○					○	
	화려한-수수한	○	○	○					○	○	○	○
	개성적인-평범 한	○		○	○	○			○	○		
귀여움성	발랄한-발랄하 지않은	○	○			○	○					○
	귀여운-귀여지 않은	○		○				○			○	○
	활동적인-비활 동적인	○	○	○				○		○		
복고성	복고적인-복고 적이지않은											
	고상한-천박한	○	○				○			○	○	○
	단정한-단정하 지않은	○		○	○			○	○		○	
여성성	여성적인-남성 적인	○		○				○		○	○	○
	낭만적인-낭만 적이지않은	○	○	○								
선호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는			○	○			○				○

